

2017 WINTER VOL. 101

mécénat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메세나



2017

한국메세나대회

+ THEME MECENAT



첨단 소재산업이 나아갈 길

누가 앞서갈까?

PONGSAN

첨단 반도체 속에 풍산이 있습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제품, 주택에도
풍산의 기술력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함께 해 온 풍산,
이제, 첨단 소재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앞장섭니다.

PONGSA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정로 23 풍산빌딩
TEL : 0213406-5114 FAX : 0213406-5400

Contents

THEME MECENAT

2017 한국메세나대회 특집

메세나 통권 101호

발행일 2017년 12월 14일

발행인 박삼구

발행처 한국메세나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7

기계산업진흥회 본관 6층

Tel. 02-761-3101~2

기획 한국메세나협회 경영기획팀

제작 디자인소호

표지 일러스트 김남희

홈페이지

한국메세나협회 www.mecenat.or.kr

기업과 예술의 만남 www.aandb.or.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ecenat.korea

- 4 **SCENE** 기업과 예술을 잇다, 영원한 동반을 약속하다
- 6 **HOT ISSUE** 2017 한국메세나대회, 문화예술 후원의 빛나는 순간을 기억하다
예술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얼굴을 만나다

SPOTLIGHT MECENAT

- 18 **MECENAT STORY** 예술을 후원하는 새로운 부르주아, 기업인의 탄생
- 22 **MECENAT SCENE** 청소년 연극 동아리, 대학로 무대에 서다
CJ문화재단 '2017 전국청소년연극제 수상작 초청공연'
문화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CJ문화재단 'CJ스테이지업 문화나눔 프로그램'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특별한 창의인재 만들기
LG연암문화재단 'LG 영메이커 아카데미 & 페스티벌'
체험을 통해 배우는 직업의 세계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와 함께 하는 청소년 진로탐색교육'
일상의 에피소드가 작품이 되다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관객과 연주자 모두가 치유 받는 오페라 공연
종근당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 오페라 & 콘서트'
문화소의·위기청소년들이 만들어 내는 희망의 소리
CJ문화재단 '튠업 음악교실' 합동공연
취미에서 전공으로, 음악가로의 꿈을 꾸다
한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및 '꿈키움레슨' 지원
소셜 창업 지원 프로그램, 2.0시대를 맞이하다
현대차그룹 & 현대차 정몽구 재단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시상식 및 사업발표회
군 장병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현대차그룹 '2017 군인의 품격'
청소년, 연극 무대를 향해하다
LG연암문화재단 'LG 나는 배우다'
놀이를 통해 창조성을 키우고, 사회를 배우다
두산연강재단 '두산어린이아트스쿨'
공연을 통해 꿈을 찾는 공연예술 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
LG연암문화재단 '꿈꾸는 프로듀서'
42 **HUMANITIES 書齋** 비정형의 정형, 소리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 예술감독 원일

ON MECENAT

- 48 **RELATIONSHIP** 현대미술 작가들을 위한 창작지원
제4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산골 초등학교에 올려 퍼진 사랑과 나눔의 선물
동서식품, '제10회 맥심 사랑의 향기' 개최
다문화 뮤지컬을 보며 서로를 이해하는
신나는 공연 한가족 다문화
신한은행 다문화 창작뮤지컬 제작 지원사업 인도편
<마살라 뮤지컬> 초연
기업과 지역예술축제의 콜라보레이션
현대백화점 & 춘천마임축제의 '팝업 마임쇼'
- 52 **MATCHING FUND** 오페라로 풀어보는 인문학 퍼즐 <오페라로 사치하라>
예술지원 매칭펀드-유구이앤씨 & M컬처스
창작뮤지컬의 흥행 신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계셔>
예술지원 매칭펀드-지승컨설팅 & 극단 연우무대
최저시급 6,470원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 <6470展>
지역 특성과 매칭펀드-서울문화재단 & 올림푸스 한국
학교에서 올려 퍼지는 클래식 선물 <NEXT Classic>
지역 특성과 매칭펀드-강원문화재단 & 벽산문화재단,
벽산엔지니어링
- 58 **MECENAT NEWS** 문화CSR 해외 현지 워크숍
'문화예술과 기업경쟁력' 세미나
- 66 **MEMBERS NEWS** 회원사 소식
- 70 **CALENDAR** 회원사 공연·전시·공고 일정 소개
- 71 **MEMBERS LIST** 회원사 소개



23



44

‘2017 한국메세나대회’를 통해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한 자리에 모였다.
문화예술이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 간 공동체적인
결속력을 높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는 사실은 이날 함께한
참여자들의 면면에서 증명된다. 무릇 문화예술 후원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
사랑받는 예술가가 많아질수록 그 혜택은 고스란히 사회로 돌아가
보다 윤택해지고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다.
예술가의 꿈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기업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한다.

예술을 잇다,
영원한 동반을 약속하다

HOT ISSUE

2017 한국메세나대회, 문화예술 후원의 빛나는 순간을 기억하다
예술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얼굴을 만나다



한국메세나대회





2017 한국메세나대회 문화예술 후원의 빛나는 순간을 기억하다

‘2017 한국메세나대회’가 11월 2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여러 회원사들을 비롯해 수상의 영광을 안은 기업인들, 정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 해 동안 기업들이 펼친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되짚어보고,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화합하는 계기가 된 뜻 깊은 행사로 치러졌다.



01



02

01
개회를 알리는
박삼구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02
이날 축사를 전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03
정재계와 문화예술계 인사 3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며 성황리에 개최됐다.



03

겨울 문턱에 선 11월 28일, 문화예술 후원에 앞장선 기업을 소개하고 시상하는 2017 한국메세나대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올해 18회째를 맞은 ‘메세나대상’을 비롯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식,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등이 함께 치러져 의미를 더했다. 특히 정부·기업·예술인·단체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해 상호 간 화합을 다지는 특별한 행사가 됐다.

문화예술 후원 기업과 문화예술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장

오후 5시 무대에 오른 정아영 MBN 아나운서의 청량한 목소리로 시작을 알린 한국메세나대회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박삼구 한국메세나협회 회장,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박영주 이진산업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이용열 코오롱그룹 회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권영빈 KBS교향악단 이사장 등 정재계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인사말에 나선 박삼구 회장은 경영 활동으로 바쁜 기업인들과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술인들이 행사장에 함께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오늘 행사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후원한 기업과 기업인을 치하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후원을 약속하는 자리이므로 참석자 모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성대한 축제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메세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기업과 문화예술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수상 기업과 회원사들에게 진심어린 축하의 말을 전하며, “기업들이 예술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를 위한 가장 큰 투자가 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더욱 열정적인 메세나 활동을 부탁하며, 세상이 문화예술의 향기로 가득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뒤이어 무대에 오른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오늘날 우리 예술가들이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된 것은 기업과 후원인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공이 크다”면서,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야말로 우리 생활의 희망 메시지임을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회원사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04

04
2017 올해의 베스트 커플에 선정된
기업과 예술단체

05
2017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기업

06
도예가 신상호 작가가 제작한
메세나대상 트로피



05



06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식,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이어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식’에서는 올해에 다양한 문화예술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발전에 앞장선 7개 기업들이 인증패를 받았다. CK치과병원,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벤탤크리아, 조은세이프, 한화생명, 현대백화점,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이들이다.

이어서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2017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진행됐다. 한 해 동안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마음을 맞대고 파트너십을 맺어 활발하게 활동한 200쌍들의 내용들을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한일테크터미널과 트러스트 무용단이 각각 대기업 장기결연 커플과 예술지원 매칭펀드 우수 결연커플로 선정돼 기념패를 받았다. 이성욱 한일테크터미널 대표는 “작은 기업이지만 그동안 꾸준히 소외계층을 찾아 후원해왔고, 올해 트러스트 무용단과 결연을 맺어 따뜻한 감성을 사회에 전달할 수 있게 돼 감회가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은아 트러스트 무용단 실장은 “기업의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좋은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고, 한국메세나협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줘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07

참석한 귀빈과 여러 기업인,
예술인들이 건배를 나누고 있다.

08

행사를 더욱 화려하게 만들어준
축하 공연 뮤지컬 <판> 갈라 콘서트

09

2017 한국메세나대회에 참여한 기업인들

기업과 예술인의 따뜻한 파트너십이 두드러진 메세나대상 시상식

잠시 휴식 후 이날의 대미를 장식할 '2017 메세나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문화예술 발전을 기약하고 예술향유 향상에 기여한 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해 축하하는 이 시상식에서 CJ문화재단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고, 문화공헌상에는 한성자동차, 창의상에는 한국남동발전, 메세나인상에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이 수상했다. 또한 기업과 예술의 건강한 파트너십을 보여준 조광요턴과 솔오페라단이 Arts & Business상을 수상했다.

올해 메세나대상 심사위원장으로 심사 과정을 함께한 권영빈 KBS교향악단 이사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우리 문화예술의 중흥을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 말하며, “수상 기업들은 여러 회원사와 여타 기업들을 대표해 받은 것이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메세나 활동에 많은 힘을 기울여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시상식에서는 먼저 Arts & Business상을 수상한 조광요턴과 솔오페라단이 무대에 올랐다. 이소정 솔오페라단 단장은 “2005년부터 조광요턴과 함께하며 오페라 공연 활동을 열정적으로 해왔다. 지금까지 중단없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조광요턴의 예술지원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양창호 조광요턴 회장은 “솔오페라단을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공헌 뿐 아니라 임직원에게도 수준 높은 공연을 경험하게 해줌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높일 수 있었다”면서 향후에도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 것임을 다짐했다.

메세나인상을 수상한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문화예술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자는 생각으로 메세나 활동에 힘을 실어왔다”고 말하고, “우리의 문화예술이 더욱 깊어지도록 예술을 통한 나눔 활동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창의상을 수상한 손광식 한국남동발전 대표는 “지역사회에 문화예술의 혜택을 확산시키고 농어촌 지역과 도서지역 주민 간 문화 격차 해소에 힘쓴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영향하모니합창단처럼 주민과 회사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뒤이어 문화공헌상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울프 아우스프롱 한성자동차 대표는 “2012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와 미술장학사업 ‘드림그림’ 프로젝트를 실시해왔다”면서 “드림그림 장학생들이 꿈을 꾸고 미술적인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 “드림그림 프로젝트의 취지를 계승해 진정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다” 밝혔다. 이번 메세나대상 시상식의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CJ문화재단이었다. 민희경 CJ그룹사회공헌추진단 단장은 “문화사업을 통한 사업보국을 모토로 메세나 활동을 통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고 소감을 말하고, “우리 예술가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화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자생력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상 기업과 기업인에게는 도예가 신상호 선생의 ‘Africa’ 연작 작품이 트로피로 수여됐고, 시상식 후에는 CJ문화재단의 첫 제작지원 창작뮤지컬인 <판> 갈라 콘서트가 이어져 이 행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끝으로 박영주 이견산업 회장의 건배사가 이어지며 2017 한국메세나대회의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07



08



09

2017 한국메세나대회



예술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얼굴을 만나다

올해 열정적으로 메세나 활동을 펼친 얼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5개 기업이 수상 무대에 올랐지만,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모두 뜻있고 소중한 보배다. 이들이 지속적인 예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메세나의 밝은 미래를 이끄는 대표 기업이 되기를 희망한다.



CJ문화재단

젊은 창작자 지원, 위기청소년 예술교육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기업 메세나 사례 제시



CJ문화재단은 2006년 설립 이래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문화키움’과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문화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문화키움’의 대표사업은 공연예술 지원 ‘스테이지업’, 시나리오 작가 지원 ‘스토리업’, 비주류 음악 지원 ‘튠업’ 등으로, 젊은 예술인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예술지원 사업을 통해 육성한 콘텐츠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창작자에게 귀속시켜 예술인들이 자생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CJ문화재단은 음악 전용 플랫폼인 ‘CJ아지트 광흥창’과 공연 전용관인 ‘CJ아지트 대학로’ 운영을 통해 젊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이자 관객들에게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문화나눔 사업인 ‘튠업 음악교실’을 통해 2012년부터 소년원, 보호관

찰소 등 위기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왔다. 현재 786명의 청소년이 참여했으며, 연말공연을 통해 자존감 향상 등의 사회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 CJ문화재단은 판소리 명창과 뮤지션의 창작 작업을 지원해 국악이 세계 속의 월드뮤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후원 사각지대의 예술인·단체를 지원하며 다양한 장르의 젊은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도 CJ문화재단은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라는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전반에서 젊은 창작자들의 꿈을 실현하고, 문화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나눔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성자동차

저소득층 미술영재 장학사업 '드림그림',
6년간 다각 지원 통해 예술가로 성장하는 발판 마련



한 성 자 동 차
Han Sung Motor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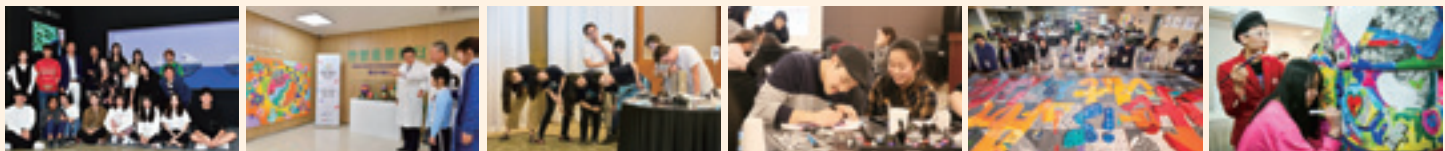
한성자동차는 지난 6년간 가정 형편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 못한 중·고등 학생 미술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드림그림 장학사업'을 운영해왔다. 선발된 미술 장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재정적, 교육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받았다. 드림그림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과 함께 미술 전공 대학생과의 1:1 멘토링, 유명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미술교육, 여름 미술 캠프,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2012년 각각 20명의 장학생·멘토로 시작된 드림그림 사업은, 2015년

한성자동차 창립 30주년 이래 장학생과 멘토를 두 배로 늘려 40명의 장학생과 40명의 멘토가 다양하고 활발한 미술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장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돕기 위해 한성자동차 임직원 멘토단인 '드림그림 앰버서더'가 함께 활동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최근 KIAF(한국국제아트페어)에 전문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출품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미술 활동으로 확장하는 와중이다.

장학생들은 서울중앙시장과 구로디지털단지역 환경개선, 서서울예술교육센터 리모델링, 서울거리예술축제 참가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여 또 다른 재능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한성자동차는 앞으로도 드림그림 미술 영재들의 꿈을 지원하고, 사회와 소통하는 예술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



이용열 코오롱그룹 회장

문화공간 '스페이스K' 운영,
청년작가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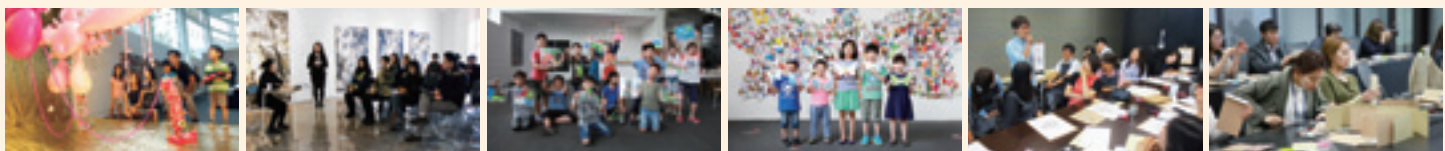
이용열 회장은 예술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민의 예술 향유를 위해 20년 동안 노력해 온 메세나인이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코오롱그룹 본사에서 시민을 위한 '코오롱 분수 문화마당'을 만들어 클래식, 뮤지컬, 아동극, 마술쇼 등 무료 공연을 선보이며 예술인들과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장을 만들었다. 또한

2000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코오롱 야외음악당을 설립하고, 대구시민의 문화공간으로 사랑받게 하고자 대구시에 기증하기도 했다.

드러나지 않게 진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예술을 후원하는 이 회장은

2011년 과천 본사 로비에 '스페이스K'를 개관하고, 신진 작가들과 저평가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해 미술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현대 미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연간 2만여 명이 방문하는 예술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스페이스K는 대구·서울·광주 등으로 확대 개관했고, 지금까지 총 124회 전시를 열어 586명의 작가에게 전시의 기회를 제공했다. 연말 자선전시 'Charity Bazaar'展(체리티 바자 진)의 수익금 전액을 자선재단에 기부하고 있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미술 프로그램 'OPEN LAB'을 운영해 예술가들의 창의적 감성을 임직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이다. 시민들과 예술가, 이 회장은 지속적인 메세나 활동을 통해 임직원이 예술과 함께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창의상

지역민·임직원 대상의 영흥하모니합창단 운영,
지역주민 문화예술 향유 지원

KOEN 한국남동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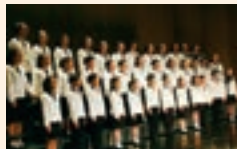


한국남동발전은 국내 최대 단위 화력 발전시설을 보유한 영흥발전본부를 비롯하여 삼천포, 분당, 영동, 여수 등 5개 발전소를 운영하는 복합화력발전소 운영 공기업이다. 각 소재 지역에서 공익성 증대와 공유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2010년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영흥하모니합창단’을 창단해 매년 정기연주회(12월)와 지역 공연을 펼쳐오며 7년간 7천여 명의 관객과 만나 예술의 기쁨을 함께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전력홍보관 ‘영흥에너지파크’를 통해 마당놀이, 송년음악회, 뮤지컬 공연 등 다양한 예술 공

연을 선보이며, 한해 12만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곳으로 사랑받고 있다. 삼천포본부에서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예한마당잔치를 열고 있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한 미술대회, 서예대회 및 음악공연 등도 진행해왔다. 또한 박재삼문학제, 사천예술제, 외룡문화제 등 문화행사도 꾸준히 직·간접적으로 후원했다. 한편으로는 사천 발전소 주변에 위치한 초등학교들의 연합 뮤지컬 공연을 지원해 아이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외에 분당, 영동, 여수 등 사업소에서는 청소년합창단 후원,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공연 등의 문화예술 공연활동을 지원해 발전소 주변 지역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해왔다. 한국남동발전은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화합하고 상생하는 문화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조광요틴 & 솔오페라

2009년부터 지속된 재정지원, 협력관계 유지 통해
기업-예술간 파트너십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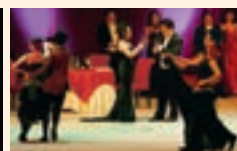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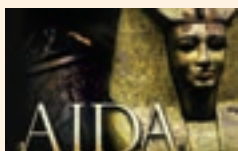


조선·해양 플랜트 관련 특수도로 제조기업 조광요틴은 지난 2009년부터 부산의 대표적인 오페라단 ‘솔오페라단’을 지원해왔다. 이후 8년간 지속되어온 솔오페라단과 조광요틴의 파트너십은 예술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변화와 성과를 가져왔다. 조광요틴은 예술후원을 통해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고, 더불어 임직원들에게 기업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진전하고 밝은 조직문화를 만들 수 있었다. 조광요틴 임직원 가족들은 솔오페라단이 주최하는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에 앞서 오페라와 클래식에 대한 재미있는 강의에 참여해 오페라와 클

래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지난 2014년에는 이탈리아 폴리에 페스티벌에서 진행된 ‘한국-이탈리아 문화교류 포럼’에 조광요틴 임직원들이 참여해 기업 메세나 활동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조광요틴의 지원에 힘입어 솔오페라단은 꾸준히 수준 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솔오페라단은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최우수작품상,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최다 관객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조광요틴은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국내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공고한 관계를 도모해온 조광요틴과 솔오페라단은 앞으로도 기업과 예술단체가 동반성장하는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젊은 창작자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는 동안
문화는 더욱 다양하고 풍성해집니다

CJ문화재단은 음악, 영화, 공연 분야의 젊은 창작자들이
꿈을 향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무대를 만들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꿈을 믿습니다

BELIEVE IN YOU



The First Drawing for Dream (2012)



A Dream You Dream Together (2013)



Connecting the Hearts (2014)



중랑시장 개선사업 (2014)



Life is Art, Art is Life (2015)



구로 디지털단지역 개선사업 (2015)



Everything is one (2016)



서서울 예술교육센터 리모델링 (2016)



Finding Yourself (2017)



32년, 메르세데스-벤츠와 함께한 리더의 역사 한성자동차,
미술영재의 미래를 후원합니다.

한성자동차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 메세나협회와 함께
2012년부터 미술영재를 지원하는 '드림그림' 장학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재능과 꿈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 수여 및 유명 아티스트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써머캠프, 연말전시회 등을 통해 예술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한성자동차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서울문화재단(SFAC)과 MOU를 체결하고,
'드림그림' 장학생들과 함께 재능 나눔을 통해 서울지역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예술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성자동차는 아이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일상을 찾아서
KOLON SPORT
Ultimate Premium Down
#안타티카 룬

미래에 가치를 둡니다 환경에 가치를 둡니다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리드하는 한국남동발전

LifeSwitch KOEN



KOEN 한국남동발전

제 2창업과제로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 1GW 해상풍력 개발
- 640MW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개발
- 1.8GW 해외발전사업 개발
- 100MW ESS연계 사업 확대

신생국 미국이 20세기 새로운 시대를 주도할 수 있게 된 시초는 아이러니하게도 1860년대 남북전쟁 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군수물자의 수송을 위해 방대한 철도 시스템이 구축되기 시작했고, 군수물자 생산 으로 파생된 경제적 활력이 전후의 폐허를 복구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확산되어 미국 경제는 이전에 없 는 대호황을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새로운 부유층이 출현하게 되는 데, 19세기 말 ‘미국의 르네상스’를 이끈 주역은 바로 이들 새로운 부르주아들-기업인이었다.

01
아메리칸 메디치 록펠러의 가족사진
©The Rockefeller Archive Center
19세기 후반 미국 최강의 기업이자
미국의 힘 그 자체를 상징했던
‘스탠더드 트러스트’ 제국의 주인공인
록펠러 가문. 애비의 남편 존 D
록펠러는 1917년부터 록펠러 재단
총괄하면서, 교육, 의료, 복지 등에
집중된 부친의 자선 사업을 고고학적
문화유적으로 확대하였으며 이는
유럽의 중세미술에 대한 자신의
관심사 또한 한 몫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컬렉션을
1925년 메트로폴리탄에 기증하고,
또한 1931년에는 분관을 위한
부지를 기증하면서 건축비는 물론
이후 소장품 구입과 유지비를 위해
250만 달러 후원했다.

02
1913년 아모리 쇼 전시장면
©Art Institute Chicago

03
아모리 쇼에 전시된 입체파, 미래파
미술에 대한 당시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삽화 ©Hyperallergic Media
“술에 취하지 않고는 이 전시를 볼
수 없다” 작품 앞에서 화들짝 놀란
관람자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나간다.

‘아메리칸 메디치’ 록펠러와 ‘아메리칸 르네상스’의 주역들

예술을 후원하는
새로운 부르주아,

기업인의 탄생





02



03

신세계로부터의 편지

동부의 유서 깊은 집안 출신으로 유력 상원의원의 딸인 애비 올드리치(Abby Aldrich)의 결혼은 당시로서는 꽤 늦은 스물일곱이 되던 해였다.⁰¹⁾ 상대는 동갑내기 브라운 대학 동창이었던 남자로, 쾌활하고 사교적인 성격에다 우아하고 세련된 면모를 보였던 그녀에 반해 내성적이고 수줍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엄격하고 금욕적인 그에게는 불행히도 자신이 사업가의 아들, 그것도 '돈 뭉치가 공기나 음식처럼 흔했던' 록펠러 1세의 외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이 자그마한 흠이라 할 것이다. 정경유착에는 의례히 따라오기 마련인 편법·매수·뇌물·담합 등의 무자비한 방법으로 쌓아 올린 가문의 '더러운 돈'과 부친에 대한 악명은 존 D. 록펠러 주니어(John D. Rockefeller Jr.)로서는 꽤나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터다.

여하튼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했던 두 사람에게 미술에 대한 애호 또한 공통의 취미에 포함되었다. 그녀의 부친 넬슨 올드리치는 미술품 수입면세 법안을 입법할 만큼 미술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인물로, 바로 컬렉터였던 부친으로부터 미술에 대한 취미를 물려받았던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친과 유럽 여행을 통해 예술 중심지를 순례하는 등 일찌감치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었다. 이후 초보 컬렉터로 워싱턴의 갤러리에서 드가의 드로잉이나 수채화 구입하기도 했지만, 결혼 후 그녀의 미술품 구매는 특히나 중세미술을 애호했던 남편의

취향대로 고전 작가들의 작품, 가령 초기 르네상스 화가인 두치오나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 작품을 수집하는 것으로 국한됐다. 이러한 수집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가 온 것이 바로 1913년 아모리 쇼(The Armory Show)를 계기로 한 것이다.⁰²⁾ 1913년 미국의 전위작가였던 아서 데이비스가 기획한 이 전시는 미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대규모 현대미술 전시로, 자국의 미술품과 함께 19세기 이후 최신의 유럽 미술품 500점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는 뉴욕을 시작으로 시카고 그리고 보스턴으로 순회했는데 미국 미술계는 물론 미국 사회에 엄청난 반향,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격렬한 반발과 분노를 일으켰다.⁰³⁾

그러나 아모리 쇼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대 혼란을 지켜보며 그녀는 오히려 자신이 잠시 밀쳐두었던 현대미술에 대한 흥미를 끄집어내게 된다. 이후 그녀는 현대 미국 작가와 유럽 모더니스트 작품을 본격적으로 수집하게 되는데, 반 고흐, 드가, 마티스, 피카소, 세잔, 툴루즈 로트렉 등의 작품을 사들임으로써 남편과 구분되는 독자적 컬렉션을 구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의 유산으로 작품을 구입했으며, 1928년 자택 내 개인 갤러리(Topside Gallery)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애비 록펠러의 이러한 개인 갤러리의 조성은 이후 많은 미국의 컬렉터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졌고, 훗날 이들의 개인 컬렉션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사립미술관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공립미술관으로 기증되어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미국의 거물급 현대미술 컬렉터 릴리 블리스와 아모리 쇼

한편 전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아모리 쇼가 실현되기 까지 몇몇 선구적인 미술계 인사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미술품 애호가였던 릴리 블리스(Lillie P. Bliss)의 이름은 반드시 언급되어야만 위치를 점하고 있다.⁰⁴⁾ 부유한 섬유 상인의 딸로 태어나 독신으로 지내며 예술을 후원했던 그녀는 당대 미국 내에서 몇 안 되는 현대미술 컬렉터로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유럽의 현대미술 작품들을 수집 점 대여해 줌으로써 이 전시를 성사시키는데 일조했다. 아모리 쇼가 당시 미국 미술의 중심지였던 시카고가 아닌 뉴욕에서 스타트 라인을 끌어들일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릴리 블리스의 역할이 그만큼 지대했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를 위해 자신의 작품을 빌려주거나 때로 기증하기도 했던 그녀는 미국의 젊은 작가들을 후원하는 것 또한 빠뜨리지 않았고, 이러한 자국의 젊은 예술가들과의 돈독한 관계는 미국의 현대미술을 함께 소개했던 아모리 쇼의 후원으로 이어졌다. 이 전시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 직면했던 아수파나 입체파, 미래파와 같은 작품들의 일부를 사들임으로써 훗날 MoMA(Museum of Modern Art)의 소장품 자산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류층 여인들의 클럽에서 만나게 된 릴리 블리스와 애비 록펠러 두 사람은 미술에 대한 동일한 취향을 바탕으로, 모던아트 전문 미술관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여 의기투합하게 된다.

04



04

릴리 블리스의 초상사진
©Alexxa Gotthardt

05

개관 당시 MoMA의 모습

©MoMA

'Museum of Modern Art'

라는 미술관의 명칭에서도

고스란히 명시하고 있는

MoMA의 정체성인 동시에

지향점이었던 것이다.

아메리칸 메디치, 록펠러와 MoMA

MoMA의 설립 이유는 명료하다. 바로 낙후된 미국 미술의 부흥이라는 명분과 함께 그들이 택한 방식은 유럽의 최신미술, 즉 현대미술을 미국 내에 소개하는 것이었다. 1929년 11월 개관할 당시 MoMA의 측면에 내걸린 '우리 시대의 미술(Art In Our Time)'이라는 표지판은 새로 만들어진 미술관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낸다.⁰⁵⁾ 이를 위해 애비 록펠러는 미술관 부지를 제공하고 릴리 블리스는 자신의 모던아트 개인 컬렉션 작품들을 내놓는다. 더 많은 후원자들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블리스의 작품들을 감정했을 때, 세잔의 <수욕도>와 <사과가 있는 정물>을 비롯하여 드가, 고갱, 마티스 등의 작품에 대한 감정가만 해도 당시 1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백만장자'라는 말이 부자의 대명사로 풍미하던 시절임을 감안한다면 가히 엄청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열의에 설득되어 동참하는 이사회가 구성됐고, 그들은 1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쉽사리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MoMA의 탄생을 단순히 돈 많은 여인들의 호사취미 차원으로 치부해서는 더욱더 곤란하다. 미술관 개관 직전 경제 대공황의 시발점을 알리는 검은 화요일(Black Tuesday)이 월 스트리트 증권가를 덮치게 되면서 사실상 미술관 개관 자체가 불투명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9일 후에 문은 예정대로 열렸으나 미술관 운영을 위한 기금 모집은 난항을 거듭하게 되면서 결국 100만 달러에서 60만 달러까지 그 규모가 축소되기에 이른다. 결국 애비 록펠러가 개인적으로 20만 달러를, 그녀의 아들 넬슨 록펠러가 10만 달러, 그리고 록펠러 가문과 친교가 있던 카네기재단에서 10만 달러를 출자함으로써 기금이 정리된다. 사실상 록펠러 가문이 ⅔를 해결한 셈이다. 또한 상당한 액수의 기금이 릴리 블리스의 남동생이었던 코넬리우스 뉴턴 블리스에 의해 메꾸어졌다. 릴리 블리스가 자신의 개인 소장품 150여 점을 기증하는 것으로 초기 MoMA의 컬

05



렉션 구성에 기여했다면, 애비 록펠러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적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록펠러의 이름으로, 때로 이마저 여의치 않을 때에는 자신의 유산으로 작품을 구입하여 이를 미술관에 기증함으로써 MoMA의 컬렉션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기증문화는 이후 MoMA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된다. 1929년 설립 후 불과 2년 만에 타계한 릴리 블리스를 기리기 위해 MoMA에서 열린 전시를 통해 그녀의 컬렉션 면면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⁰⁶⁾ 세잔, 드가, 쇠라, 고갱, 마티스, 모딜리아니, 피카소의 작품이 전시되었고,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⁰⁷⁾이나 피카소의 <아비뇰의 처녀들>⁰⁸⁾과 같은 주옥같은 작품들이 그녀의 기증 작품 일부를 판매해 오늘날 MoMA의 소장품 목록에 오르게 된다.

기업가의 메세나 활동과 미국식 예술후원

이후 이들의 뒤를 이어 많은 개인 후원자들이 자신들의 컬렉션을 미술관으로 환원시키거나 공공미술관에 기증함으로써 뉴욕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1930년에는 거트루드 반더빌트 휘트니(Gertrude Vanderbilt Whitney)가, 1937년에는 솔로몬 R. 구겐하임(Solomon R. Guggenheim)이 자신의 이름을 딴 미술관을 설립함으로써 그토록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현대미술, 특히 추상미술을 미국에 소개하고 선보였다. 또한 헨리 클레이 프리크(Henry Clay Frick)의 고전미술 컬렉션은 그의 사후 1935년 뉴욕 시민들에게 공개됨으로써 근대 이전의 미술사의 상당 부분을 메꾸는데 일조하게 된다. MoMA의 설립 이후 20세기 전반에 걸쳐 펼쳐지는 이러한 예들은 철저히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른바 미국식 메세나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인들의 자발적 기증이나 미술관 설립을 통해 이들 후원자들은 유럽에 비해 현격히 뒤떨어졌던 미국 내의 열악했던 문화적 유산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부유한 개인들의 사회적 활동 영역에는 문



06

06
릴리 블리스 타계 후
열린 회고전 ©MoMA

07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MoMA

08
피카소 <아비뇰의 처녀들>
©MoMA



07



08

화예술단체의 이사회 일원으로 행하는 후원 활동이 공식적인 경력 사항에 포함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말이다.

아직 록펠러의 얘기가 더 남았다. 1967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BCA(Business Committee for the Art, 미국 예술지원 기업위원회)는 록펠러재단의 주도에 의한 것이었는데, 이는 당시 체이스맨해튼은행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록펠러가 기업의 사회공헌 예산의 일부를 문화예술에 할당하자는 제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어머니인 애비 록펠러의 예술후원 활동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으며, 성장한 후에는 MoMA의 이사회 일원으로 활동했던 그였기에 가능했던 제안일 것이다. 이로써 사회적 시스템으로 정착된 기업들의 문화예술 후원은 한층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이 성공적으로 나타나자 1976년 영국에서 예술후원기업협의회(ABSA)가 각각 창립됐으며, 이후 유럽 등 각국으로 빠르게 퍼져 나간다. 이를 모태로 한국에서도 1994년 204개 기업이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를 발족하면서 기업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이른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심장 미국에서 시작된 미국식 메세나의 전형이다.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식의 일환으로서 말이다. 



01

청소년 연극 동아리, 대학로 무대에 서다

CJ문화재단 ‘2017 전국청소년연극제 수상작 초청공연’

01~03

2017 전국 청소년연극제의 대상 수상작과 최우수상
수상작의 초청공연이 대학로에서 진행되었다.

04~06

연극에 열성적인 청소년들은 전문가와 공연 준비를
하며 다방면의 예술적 경험을 쌓고 돌아갔다.



02

“분장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얼굴 근육의 위치와 움직임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분장실에 앉은 10여 명의 청소년들이 분장 전문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쫑긋 세워 듣고 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전문적인 연극 분장 지도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이 청소년들은 2017 전국청소년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의 연극 동아리 ‘페르소나’의 멤버들이다.

한국메세나협회와 CJ문화재단은 스테이지업 문화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7 전국청소년연극제 수상작 초청 공연’을 11월 17일과 21일 양일간 대학로 CJ 아지트에서 진행했다. ‘2017 전국청소년연극제 수상작 초청공연’은 전국청소년연극제의 대상, 최우수상 수상작을 대학로 무대에 올리는 프로젝트이다. 청소년연극제에 참가할 정도로 연극에 열정적인 청소년들에게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공연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전문 공연장에서 공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방면의 예술적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전문가와 함께 완성도 높은 청소년 연극 무대

전국 16개 지역별로 진행된 예선을 거쳐, 전남 광주에서 열린 2017 전국청소년연극제 본선에 참여한 연극동아리 중 전북지평선고등학교가 대상(국무총리상)을,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가 최우수상(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이 두 학교의 공연이 11월 17일과 21일 양일간 연극의 본산인 대학로 CJ 아지트 공연장에서 다시 한번 무대에 올랐다.

11월 17일,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의 연극 동아리 ‘페르소나’의 학생들은 CJ 아지트 대학로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뮤지컬<여신님이 보고계셔>, 연극<터키 블루스> 등의 작품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재인 무대감독이 무대 리허설을 함께 진행했다. 공연의 조명과 무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직접 시연을 보이며 공연

2017 전국청소년 연극제 수상작 초청공연

who

전국청소년연극제 대상,
최우수상 수상 동아리

what

청소년들에게 다방면의
예술적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한 프로젝트

1



03

의 장점을 극대화할 방법을 함께 고민했고, 전문가로부터 캐릭터에 맞는 분장하는 법 등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학생들 스스로 만든 단출한 무대와 의상이지만, 처음으로 전문가에게 코치를 받고 업그레이드된 공연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렘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조명이 떨어지는 위치, 출연진의 동선을 어떻게 정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보였고, 노재인 감독은 연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많은 팁을 알려주었다.

연극에 대한 열정 일깨운 소중한 경험

4시간이 넘는 긴 시간을 준비해 드디어 대구원화여자고등학교에게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연극 <할매의 하늘> 공연이 시작됐다. 무대 위에 올라간 동아리 학생들은 더 이상 순진무구한 여고생이 아니었다. 손녀가 멀리 떠날까 두려워하는 고집스러운 할머니였고, 꿈과 희망으로 공부의 끈을 놓지 않는 어린 소녀였다. 학생들이 직접 쓴 이야기임이 믿기지 않을 만큼 완성도가 높고 연기 또한 우수하다는 심사평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님을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는 학생들은 “학교 강당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극의 중심 대학로 무대에 서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며, “이제 진짜 무대를 만난 것 같다”라고 외치며 들뜬 심정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무대가 주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은 다음날 다양한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무용 워크숍’을 통해 움직임을 창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워크숍을 마친 학생들은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를 통해 발굴된 창작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를 관람하고 대구로 돌아갔다.

미래의 대한민국 연극계를 이끌어 갈지 모를 청소년 연극인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2017 전국청소년연극제 수상작 초청공연’은 11월 21일 전북지평선고등학교의 연극동아리 ‘아파시오나토’의 연극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



04



05



06

CJ스테이지업 문화나눔 프로그램

who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450여명

what

문화소외지역 청소년을
위한 초청 공연

2



01



02



03



04

01~04

초청받은 학생들은 하나 같이 연극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공연에 푹 빠져들었다.

문화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CJ문화재단 'CJ스테이지업 문화나눔 프로그램'

한국메세나협회는 CJ문화재단과 함께 '2017 CJ스테이지업 문화나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연극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문화소외지역 청소년 450여 명을 초청했다. 10월 13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된 이번 초청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경기도 용인 신갈중학교, 서울 성북구 남대문중학교, 서울 노원구 염광고등학교, 경기도 김포 통진중학교, 경기도 파주 수억고등학교, 서울 관악구 등 서울·경기권의 청소년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이 관람한 작품은 CJ문화재단의 공연 제작 지원 프로그램인 '스테이지업(STAGE UP)'의 두 번째 제작지원 선정작 연극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로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작가 다나카 세이코가 1984년 6월 '월간 가도카와'에 발표한 단편소설 '조제와 호랑이와 물고기들'을 무대화한 것이다. 이 작품은 다리가 불편해 거의 외출을 했던 적이 없는 조제와 대학을 갓 졸업한 츠네오의 사랑과 이별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또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2003년 츠마부키 사토시와 이케와키 치즈루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큰 사랑을 받기도 했다.

연극예술에 깊은 감동 느낀 청소년들

잔잔한 스토리의 연극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낄까봐 걱정한 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공연을 관람한 150여 명의 학생들은 시끌벅적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매우 집중하며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을 보러 간다는 말을 하면 겉으로는 싫은 척하지만, 평소에 싫다고 표현하는 강도를 생각하면 공연에 대한 은근한 기대가 있다는 건 알 수 있다"는 인술교사의 말이 실감 나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은 조제와 츠네오의 대화 속에 담긴 의미들을 새기며 연극의 흐름에 빠져들어 함께 웃고 울었다.

공연을 관람한 남대문중학교 김도훈 군은 "평소에 영화는 챙겨서 보는데, 연극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거의 보기 힘들다"며 "연극은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생각에 와서 자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연극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공연을 더 챙겨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공연을 본 소감을 밝혔다. 이날 함께 자리한 남대문중학교 김선아 선생은 "우리 아이들이 학원이나 집안 사정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연을 관람하기 어렵다. 아이들이 많이 보고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문화를 누리며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직은 옛된 청소년들이 도시의 설계 원리를 더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어려울 것 같은 도시설계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그 안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찾아가며 작품을 만들었는지 말하는 청소년들은 LG 영메이커 아카데미를 통해 1달간 과학-예술 융합 수업을 들은 김포중학교 학생들이다 양질의 예술-과학 융합형 창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 창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LG 영메이커 아카데미'는 2016년 처음 시작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었다. LG연암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청소년들의 창의적 사고 및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융합, 디자인, 건축, 미래,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키워드로 구성된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다.

예술과 과학을 함께 배우며 새로운 세상에 눈뜨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 이 아카데미의 가장 큰 테마는 학생들 스스로 '미래의 도시'를 설계하고 관련 건축물들을 구상, 미니어처로 제작하는 활동이다. 수업은 스스로 정한 컨셉에 따라 도시를 설계하는 '미래의 도시를 설계하자!- Architecture Design!', 자연 친화적인 생태 도시를 설계하는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를 디자인 하자!- Ecological polis Design!', 도로, 차량, 신호 등 기존 교통체계에 정보, 전자, 제어 등의 기술을 접목해 교통체계 제어 시스템을 구상하는 '미래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디자인 하자!-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Design!'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수업에 참여한 김포중학교 학생들은 스스로 구성한 도시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01



02



03

나가기 시작했다. 스티로폼을 잘라 건물을 만들고, 3D펜으로 신호등을 세웠다. 처음으로 접해본 3D펜은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교통통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가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필요한 공간인지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다.

건축과 미술, 디자인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중학생들도 꽤 많았다. 이지연 학생은 "건축설계는 디자인만 예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과학적 요소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수업 때 만들어본 것 같은 미래도시에 살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수업 참여 소감을 밝혔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9월 23일~24일 과천 과학관에서 진행된 '2017 영메이커 페스티벌'에 참여해 2개월간 배운 내용을 페스티벌에 참여한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동안 초·중·고등학생 및 가족 등 1만여 명이 넘는 인원이 행사장을 찾았고, 김포중학교 학생들 역시 건축과 디자인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주제에 맞추어 진행된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트렌드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예술과 과학을 융합한 특별한 창의인재 만들기

LG연암문화재단 'LG 영메이커 아카데미 & 페스티벌'

04



WRITER 김옥진(경영기획팀 대리)

01, 02

LG영메이커 아카데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김포중학교 학생들

03

김포중학교 학생들이 자신이 배운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정보를 '영메이커 페스티벌'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 및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3

LG 영메이커 아카데미 & 페스티벌

who

김포중학교 학생들

what

중학생들을 위한
예술-과학 융합 교육

금호타이어와 함께 하는 청소년 진로탐색교육

who

남대문중학교 학생들,
무학중학교 학생들

what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계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의적인
창작활동 기회 제공

4



01

체험을 통해 배우는 직업의 세계

금호타이어

‘금호타이어와 함께 하는 청소년 진로탐색교육’



02



03



04

01, 02

무용 교육 강사 양정현이
학생들에게 무용 강사라는
직업에 대해 움직임과
사진으로 설명하는 모습

03~04, 07

문화예술을 통해
진로체험교육을 진행한
학생들의 모습

05~06

2017 서울교육
희망메세지 작품공모전
UCC 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남대문중학교 공모
작품 영상 중 한 장면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금호타이어는 예술단체와 함께 중학생들을 위한 진로 탐색 교육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사진, 무용, 영상 장르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계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창의적인 창작 활동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예술교육을 통한 진로탐색의 길을 모색하다

2017년 1학기에는 성북구 장위동 소재의 남대문중학교에서, 2학기에는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무학중학교에서 각각 교육을 진행했다. DSLR 카메라를 활용한 사진 촬영과 라이트 페인팅, 무용 등 다양한 수업을 바탕으로 참여 학생들은 사진작가, 연출가, 큐레이터, 안무가, 무용수, 영상감독 등의 직업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보다 과학적인 원리나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감수성과 철학적 사유를 겸비해 기술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측면 모두에서 교육 성과가 나타났고 빠른 습득력을 보였다. 특히, 남대문중학교에서 ‘나를 찾아줘’

수업 중에 제작한 영상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주최한 ‘2017 서울교육 희망메세지 작품공모전’ UCC 부문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예술적 흥미를 발견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

1학기 수업을 진행한 남대문중학교 김지영 교사는 “평소에 접하기 힘든 분야의 수업인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아이들이 종종 찾아와 너무 재미있었다고 이야기하곤 한다. 무엇보다도 아이들끼리 직접 콘티를 기획하고 영상촬영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서로 많이 친해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또한 2학년 김재우 학생은 “사진과 동영상편집, 무용안무까지 너무 재미있는 것들을 해서 행복했다. 이런 방과 후 활동이 있으면 또 신청하고 싶다”고 환한 웃음으로 답했다.

2학기에 수업이 진행되었던 무학중학교 김송이 교사는 “미래사회는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는데 신체와 카메라라는 표현 도구를 접해보고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보는 활동은 학생들의 성장에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금호타이어는 향후 2018년 수업부터는 ‘장수 사진 촬영 봉사활동’이나 ‘어르신 건강 스트레칭 지원’ 등의 지역사회 봉사 활동과 연계하여 아이들의 건강한 인성 형성에도 기여할 계획을 하고 있다. ■■



05



06

07



드림그림

who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장학생

what

미술영재 지원 및
육성 장학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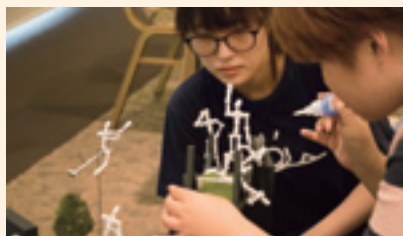
5



01

일상의 에피소드가 작품이 되다

한성자동차 '드림그림'



02



03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건물 위를 뛰어다니는 사람이에요.

스파이더맨처럼 건물과 건물을 오가는 사람인데, 친구가 급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으로 뛰어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죽는 이야기죠.”

드림그림 장학생은 단편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이야기를 건물모형들 위로 빠르게 채워진 인
물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사람이 움직이는 동작을 매우 작은 단위로 쪼개서 그대로 노출
해 마치 하나의 장면이 동영상인 듯 흘러가듯 만들어낸 이 수업의 제목은 ‘키프레임’ 프로젝트다.
한성차 드림그림 장학생들은 지난 8월 세계적인 미술단체인 프랑스의 ‘그룹 랩스(Groupe
LAPS)’와 함께 이번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전시할 작품 제작을 위해 아트 워크숍을 진행하
고, 일상 속 에피소드들을 토대로 캐릭터의 기본 움직임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룹
랩스 아티스트들은 학생들의 작품에 동작의 재미 요소 및 예술성을 높여 작품을 완성했다.

일상이 예술로 탈바꿈하는 변화를 체험하다

지난 8월 드림그림 장학생들과 함께한 캠프에서, 40여 명의 드림그림 장학생은 멘토들과
모여 ‘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2명씩 조를 짜고, 줄을 이용해 공간을 만들어보는 워크숍
으로 프로그램은 시작되었다.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숨’을 표현하는 조, 긴 끈을 최대한 멀
리 보내 가능한 긴 공간을 만들어내는 조 등 줄이라는 한정된 소재로 다양한 주제의 공간이
탄생했다. 수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공간의 모습을 줄이 아닌 동작으로 표현해보고,
이것을 수십장의 크로키로 옮겨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뒤이어 3~4개의 조를 하나의 조로
합쳐서 각자가 만들어낸 크로키들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단순한 줄이 동작과
그림 그리고 스토리로 점층적으로 발전하면서 애니메이션과 같은 장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이다.

수업에 참여한 장학생 이하선 양은 “기존의 수업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자기만의 세계를 그리는 거였다면, 이 수업은 친구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고, 스토리를 만들면서 좀 더 입체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수업참여의 소감을 밝혔다. 이렇게 완성한 작품들은 10월 5일부터 8일 동안 진행된 서울거리예술축제의 메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서울시민들과 만났다. 울프 하우스프롱 한성자동차 대표, 서현재 한국메세나협회사무처장, 주철환 서울문화재단 대표, 드림그림 학생 등 관련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점등식 세리머니와 함께 키프레임 작품에 불을 밝혔다. 80여 개의 인체를 형상화한 캐릭터가 모여 하나의 스토리를 구성한 이번 작품은 6개의 에피소드(달리기와 점프, 클래식댄스, 빛의 판타지, 태권도격투, 죽음의 무도, 펑키댄스)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 다양한 애니메이션 형태를 표현했다. 서울거리예술축제 기간 동안 매일 밤 8시부터 3시간 동안 점등되어 축제 기간 가장 손에 꼽는 작품으로 각인되었다. 



04



05

01

드림그림의 장학생들이 참여한 작품 '키프레임(Keyframes)'이 서울거리예술축제에 전시되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02~05

작품 제작에 여념이 없는 드림그림 장학생들

06

프랑스의 유명 미술 단체인 '그룹 랩스(Group Laps)와 함께한 모습

06





01

관객과 연주자 모두가 치유 받는 오페라 공연

종근당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 오페라 & 콘서트’

01,02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우리플라자에서
열린 오페라 & 콘서트 공연.

03,04
많은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음악을 즐기며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을 잠시 잊었다.

지난 10월 11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우리플라자에서 종근당 오페라 희망 이야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오페라 &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는 전국의 병원을 찾아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 나눔 프로그램으로, 종근당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11년부터 매년 전국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찾아가는 오페라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4부터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협약을 맺고 실력 있는 예술단체와 함께 오페라를 통한 문화예술 나눔 사업을 펼쳐가는 중이다.

병원 로비에서 진행하는 ‘오페라 & 콘서트’는 기존의 로비 오페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다. 클래식한 오페라 곡뿐 아니라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음악과의 콜라보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연 프로그램 기획으로 클래식을 모르던 사람도 클래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행복을 선사한 특별한 무대

공연이 진행된 우리플라자는 일부러 찾지 않으면 공연 관람이 쉽지 않은, 로비와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여 명이 넘는 많은 관객이 객석과 무대 좌우에 꽂 들어차 빈 공간을 찾을 수 없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팜페라 콰르텟 디 에스가 ‘Il Mondo’,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중 ‘지금 이 순간’, 오페라 <투란도트>의 ‘Nessun Dorma’, 영화 시스터 액트의 ‘Oh! Happyday’ 등을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소프라노 장지애가 푸치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

who

전국 30여 개 병원

what

전국 병원 로비 및
아동병동 방문 오페라
공연 진행

6

02

니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O mio papino caro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Je Veux Vivre! 꿈속에 살고 싶여라' 등의 명곡을 불렀다. 또한 팝페라 가수 하나린이 뮤지컬 <마이페어레이드>의 'I could have danced allnight' 등을 불러 환호를 받았다.

공연에 참여한 팝페라 가수 하나린은 “관객들이 음악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더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다”며 “특별한 공연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공연의 소감을 밝혔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은 2013년부터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와 인연을 맺고 있는 곳이다. 1주일에 2~3회 이상 예술 봉사를 하기 위해 교회 성가대, 동아리, 성악 합창단 등 다양한 예술단체가 병원을 찾는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인 한대금씨는 환자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종근당 오페라 희망이야기'를 손꼽는다. “많은 예술단체들이 찾아와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 관객들의 반응은 매우 정확하게 읽힌다.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해도 공연의 질이 낮으면 바로 발길을 돌리기 마련인데 오페라 희망이야기 프로그램은 대중적인 레퍼토리와 뛰어난 성악가들의 공연으로 가던 길도 돌아서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공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2017년 새롭게 참여한 예술단체 트리니티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준비한 '오페라 & 콘서트'가 아름다운 음악으로 투병에 치진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03



04

튠업 음악교실

who

문화소의 위기청소년

what

인디뮤지션이 학교를 방문,
음악 교육 진행

7



01

문화소의·위기청소년들이 만들어 내는 희망의 소리

CJ문화재단 '튠업 음악교실' 합동공연

01~02

50여 명의 문화소의·위기 청소년들이 튠업 뮤지션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지난 5개월간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02

10월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CJ아지트 광흥창에서는 어느 공연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뜨거운 열기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고봉중고등학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나사로청소년의집, 세상을 품은 아이들 등 4곳의 시설에서 '튠업 음악교실' 수업에 참여해 온 청소년 중 50여 명이 튠업 뮤지션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지난 5개월간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는 '튠업(Tune Up) 음악교실'의 무대가 펼쳐진 것이다.

음악을 매개로 잃었던 희망을 되찾다

위기 청소년 대상 문화나눔활동 '튠업 음악교실'은 지난 2012년 CJ문화재단이 음악을 통한 문화 소외 청소년의 건강한 인격 형성을 목표로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다문화청소년 대안학교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2014년부터는 법무부와 함께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 등 청소년 교화시설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 중이다. 또한 2017년부터는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보다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 진행 중이다. CJ문화재단의 신인 대중음악인 발굴·지원 프로그램 '튠업' 출신의 인디 뮤지션들이 강사로 참여해 재능기부를 펼치는, 대표적인 나눔의 선순환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공연에 참여한 김상태(가명)군은 “음악을 하기 전에는 많이 방향했어요. 하지만 튠업 음악교실을 통해 마음이 통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전부터 하고 싶었던 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제 진짜 꿈을 찾은 것 같아요”라며 튠업 음악교실을 통해 진정한 꿈을 찾은 소감을 밝혔다.

2시간 동안 이어진 공연은 4개 기관에서 튠업 음악교실 수업을 듣고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공연했으며, 곡이 끝날 때마다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CJ 문화재단 관계자는 “미성숙한 시기에 여러 이유로 인해 위기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처벌과 교화뿐 아니라 관심과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튠업 음악교실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하며 “음악 외에도 연극·요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성과 진로 교육을 통해 문화소의·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보에의 선율이 객석으로 퍼져나가고, 단원들이 함께 뒤를 이어 음악을 완성해 나간다. 4년 차 오케스트라인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연주는 여느 성인 연주자 못지않다. 한국메세나협회와 한화그룹이 함께 기획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은 취미를 뛰어넘어, 음악인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천안과 청주의 문화소외 청소년들에게 정통 클래식 악기를 가르치는 음악 교육 프로그램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는 2014년 시작되었다. 이 사업은 평소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악기를 가르치고 연주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앙상블 교육,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함께 완성해가는 음악'의 즐거움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연 70회 가량 개별 레슨 및 그룹 레슨을 받고 있다.

음악가의 꿈에 한걸음 다가서다

2017년 11월 11일 천안 태조산청소년수련관, 11월 13일 청주 한국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진행된 정기연주회는 1년간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채은석 지휘자의 지휘 아래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레미 송',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축배의 노래' 등의 곡들로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그러나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청주지역에서 관악 앙상블에 참여하고 있는 이정규 학생의 연주였다. 악기를 전혀 배워본 적 없는 이정규 군은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1기 단원으로 참여, 처음

으로 악기를 접하게 되었다. 이정규 군의 음악적 가능성을 발견한 채은석 지휘자와 김정선 음악감독은 한화와 함께 음악 전공지망생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인 '꿈키움전공레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정규 군은 한화의 지원을 통해 입시를 위한 전문 레슨, 악기지원 등의 지원을 받는 '꿈키움전공레슨'을 통해 음악인으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꿈키움전공레슨'은 앙상블 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전공 입시 레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입시를 목전에 둔 고교 3학년생 단원에게는 주 2회의 전공 입시 레슨과 전공용 악기를 지원해 입시수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정규 군 외에도 바이올린, 비올라, 호른 등 총 4명의 단원이 '꿈키움전공레슨'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정규 군이 연주한 엔리코 모리코네 '가브리엘의 오보에(영화 <미션> OST)'는 관객뿐 아니라 함께 수업에 참여한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도 큰 울림을 남겼다. '음악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정규 군이 증명한 것이다.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를 통해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된 이정규 군은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를 통해 보낸 4년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라고 참여의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프라노 박지홍, 테너 채관석, 청주 CBS 엔젤콰이어가 함께 참여해 공연을 더욱 빛내주었다. 공연을 마친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은 11월 18일 서청주요양원, 12월 2일 로즈마리너싱홈, 12월 15일 한화 본사에서 재능 나눔 연주회를 진행했다. 



02



03

01~03

1년간의 수업을 마무리하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취미에서 전공으로, 음악가로의 꿈을 꾸다

한화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및 '꿈키움전공레슨' 지원

01



WRITER 김옥진(경영기획팀 대리)

8

한화청소년 오케스트라

who

한화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

what

연 70여 회 정기적인
악기교육 및
정기연주회 개최



01



02

01~06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6기 발대식이
현장 이날 발표된 총
25개 창업팀은 앞으로
24개월 동안 창업 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적 기업가들의 산실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2017년 10월 18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이하 H-온드림 오디션)' 6기의 시상식과 사업발표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현대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예선과 본선을 실시한 끝에 최종적으로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25개의 창업팀을 선정했다. H-온드림 오디션은 2012년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현대차그룹, 현대차 정몽구 재단, 사단법인 씨즈, 한국메세나협회, 전국 20여 개의 사회적기업가 육성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든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을 위한 책임감 있는 사회적 기업가를 선발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의 체인지 메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며 전문가 멘토링과 창업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새로운 시각과 개방적인 자세로 도전하는 창업정신을 응원하다

이날 체인지 메이커가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자리로써, 올해 선정된 H-온드림 오디션 펠로 6기를 축하하고 소개하는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유영학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오

04



03

소셜 창업 지원 프로그램, 2.0시대를 맞이하다

현대차그룹 & 현대차 정몽구 재단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시상식 및 사업발표회

9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who
H-온드림 펠로 25개팀

what
사회적기업가 창업 및
육성 지원



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정형중 현대차그룹 전무,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서현재 한국메세나협회 사무처장,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대표 등 많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은애 센터장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회적 기업이 갖춰야 할 열정, 전문성 등을 집중해서 보았다”고 심사 기준을 밝혔다.

6기 펠로로 선정된 단체 중 하나인 히트북은 창업 초기 단계의 소셜미션인 ‘교육기부’ 활동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을 책으로 보고, 보다 많은 이들이 책을 만날 방법으로 ‘아외 도서관’을 기획해 운영 중이다. 박혜연 히트북 대표는 “거창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과 이유 등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H-온드림 오디션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H-온드림 오디션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는 이들을 발굴해내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다.

유영학 현대차 정몽구 재단 이사장은 “재단과 현대차그룹은 H-온드림 오디션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청년 및 사회 취약계층의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훈 현대자동차그룹 이사 인터뷰

현대자동차그룹에서 H-온드림 오디션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현대자동차그룹은 ‘미래를 위한 진정한 파트너’라는 사회공헌 비전을 통해 ‘6대 무브’를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약자의 자립과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드림무브’의 대표 활동으로, 저희는 사회적 혁신가들의 지원을 통해 저희가 직접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기에 현대차정몽구재단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서 가장 손에 꼽는 보람은 무엇인가요?

H-온드림 오디션과 함께한 150개 기업들은 그동안 827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누적 7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보람은 저희가 지원한 사회적 기업 하나하나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더욱 더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 초창기 때부터 함께 했던 ‘마리몬드’, ‘두손컴퍼니’ 등의 기업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보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외에 문화예술 지원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전국대학 연극, 뮤지컬 경연대회 H-스타 페스티벌’은 뛰어난 자질을 갖춘 공연 예술가를 발굴하고자 개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대학생 공연예술 축제입니다. 또 광주에 위치한 ‘청춘발산마을’에서는 광주의 대표적 달동네 발산마을을 지역주민, 청년 창업가, 문화예술인과 함께 광주의 대표 문화관광 마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 ‘군인의 품격’을 통해서 우리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 장병들과 소통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강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온드림 오디션이 2.0으로 새로워지면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것인가요?

올해는 지난 5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진정성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을 보다 공정하고 세밀하고 조정하였고, 기존의 ‘오디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심사 과정에서 각 창업팀들의 부족한 부분을 멘토들이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말부터는 ‘엑셀러레이팅’ 분야를 신설,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견 사회적기업들에게 전문적인 교육, 컨설팅,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H-온드림 오디션이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바라시지요.

어느덧 사업이 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새로운 모습의 H-온드림 오디션이 실시되는 만큼 앞으로 10년, 20년 후 본 사업이 사회의 발전과 시대에 맞게 더 새로워지고 발전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와 함께했던, 그리고 함께 할 ‘온드림 펠로’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큰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혁신과 일자리,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여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05

06

2017 군인의 품격

who

전국 10개 부대
7천여명의 군 장병

what

공연과 토크쇼 등 다양한
문화공연 진행

10



01

군 장병들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현대차그룹 '2017 군인의 품격'

01

개그맨 김영철이 군 장병들을 위해 '토크 & 미니 콘서트'를 진행했다.

02, 03

2017 군인의 품격에 참여한 군장병들



02



03

대한민국 군 장병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특별한 공연 '2017 군인의 품격'이 시작되었다. 10월 20일 육군사관학교로 포문을 연 '2017 군인의 품격'은 12월까지 전국 10개 부대 7천여 명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연극과 토크&미니콘서트를 선보이게 된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군인의 품격'은 군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매년 공연과 토크쇼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2개 부대 약 6만 2천 명 군 장병이 '군인의 품격'과 함께 했다.

2017 군인의 품격은 청년들의 꿈, 희망, 도전 등을 주제로 한 '토크 & 미니콘서트'와 청년 성장스토리 연극 <유도 소년>을 각각 6회, 4회 선보인다. 토크&미니콘서트는 개그맨 김영철 씨 등 각계 전문가와 뮤지션이 참여해 음악, 댄스 등의 예술 콘텐츠를 결합한 강연 프로그램이다. 연극 <유도 소년>은 2014년부터 공연을 시작해 평균 객석 점유율 104%, 인터파크 예매 순위 1위 수차례 석권 등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다. 이들 두 공연은 청년들의 성장과 꿈, 희망, 도전 등을 주제로 하고 있어 군 장병들이 현재 느끼는 고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전과 성취에 대한 진솔한 메시지를 전하다

첫 순서로 진행된 토크&미니콘서트는 개그맨 김영철이 겪었던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며,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고민들을 하나씩 짚어주는 시간이었다. 14년째 매일 아침 20분씩 전화 영어를 통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힌 김영철 씨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허무맹랑해 보이는 목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뤄나가고 있는 이야기를 군 장병들에게 전했다.

공연을 관람하던 한정우 일병은 "전공과 꿈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공을 선택하면 무난하게 진로를 결정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만 꿈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영철은 "가슴이 뛰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20대의 나이가 지금은 많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실패하고 다시 시작한다 해도 충분히 젊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군에서 보내고 있는 군 장병들이 도전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은 군 관련 사회공헌 활동과 우수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활발히 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LG 나 배우다

who

청소년 배우들과
젊은 연극인들

what

청소년에게 실제 연극
제작 체험 기회 제공

11

01

청소년, 연극 무대를 향해하다

LG연암문화재단 'LG 나 배우다'

01. 02

청소년 배우들과 젊은
연극인이 함께 만든 연극
<오디세우스, 길을 찾는 자>



02

배의 가장 높은 곳에 선 오디세우스와 선원들이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을 앞두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가자고 외친다. 그들의 앞에 무엇이 나타날지 알 수는 없지만, 무대 위 선원들은 힘차게 노를 저으며 거침없이 나아간다. 지난 3달간 'LG 나 배우다' 프로그램을 통해 극단 북새통과 함께 연극 교육을 받은 10명의 청소년이 완성하는 무대 연극 <오디세우스, 길을 찾는 자>의 이야기다.

LG연암문화재단과 LG아트센터,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하는 'LG 나 배우다'에 참여한 청소년 배우들과 젊은 연극인이 함께 만드는 연극 <오디세우스, 길을 찾는 자>가 11월 18일~19일 양일간 홍릉 KOCCA 콘텐츠 시연장에서 공연되었다. 'LG 나 배우다'는 만 24세 미만 청소년 대상 연극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극단과 함께 연극 교육부터 실제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배우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연극의 모든 것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9월 9일부터 교육지도 및 연극 연출로 참가자들과 함께한 극단 북새통의 남인우 연출은 모든 노하우를 활용해 교육에 임했다.

배우의 꿈을 현실로, 당당히 무대에 선 청소년들의 도전

대본 읽기, 움직임, 연기 등 연극 출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 첫 무대는 건강한 에너지로 가득했고, 처음이라는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안정감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텔레마코스, 칼립소, 퀴클롭스의 거인 등 연극에 등장하는 주요 배역뿐만 아니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들

을 소화하기 위해 1명이 2~3개의 배역을 소화했다. 공연이 끝나자마자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LG 나 배우다'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관객들의 박수 소리에 환한 웃음을 보이며 들뜬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텔레마코스 역을 맡은 김민혁 군은 "3달간 머릿속으로 그려오던 무대에 배우로서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신기하다"며 "원하고 노력하면 나도 할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연극 <오디세우스, 길을 찾는 자>는 호메로스의 대서사시로 오디세우스의 10년간에 걸친 귀향 모험담으로, 온갖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집으로 귀환하는 그리스 신화 '오디세이'를 연극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집에 돌아가기 위해 끊임 없는 도전과 모험을 해야만 하는 오디세우스의 모습에서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의 모습의 모습을 찾았다는 남인우 연출은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장면을 만들었던 과정이 인생에 소중한 경험과 추억이 될 것이다"라며 "기대 이상으로 에너지가 가득한 연기를 보여줘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3개월간 준비해 완성한 공연 <오디세우스, 길을 찾는 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정식 공연에 앞서 11월 13일과 5일 김포중학교와 성남동중학교에서 재능 나눔 공연을 진행했으며, 또래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희가 만든 게임의 이름은 ‘도망쳐! 엘리스’입니다.

이 게임은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가면서 엘리스를 잡는 게임으로, 가로 선에서는 뛸 수 있고, 대각선에서는 걷기만 가능합니다.”

두 눈을 반짝이며 친구들과 함께 만든 게임 룰을 설명하는 정진우 어린이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게임 만들기에 참여했다. 만들어진 게임에 수동적으로 휩쓸려가기에 익숙한 어린이들은 스스로 게임의 스토리와 규칙을 만드는 과정이 마냥 즐겁기만 하다. 이 수업은 게임을 통해 사회성과 창조성을 함께 키울 수 있는 ‘두산어린이아트스쿨’의 바닥놀이 워크숍이다.

한국메세나협회는 두산연강재단과 함께 10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두산어린이아트스쿨’을 진행했다. 올해 6년째를 맞이한 ‘두산어린이아트스쿨’은 (주)두산 주최, 두산연강재단과 한국메세나협회가 주관하는 문화공헌사업으로 중소도시의 작은 학교(전교생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다. 참여 어린이들은 2박 3일간 전시 및 공연 관람, 두산아트센터 투어, 예술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체험한다.

아이들의 창조성을 깨워주는 수업

10월 29일 진행된 첫 번째 캠프 첫째 날, 어린이들은 한기미술관 전시와 <난타> 공연을 관람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놀공발전소가 준비한 ‘바닥 놀이 워크숍’에 참여했다. ‘도망쳐! 엘리스!’, ‘콩쥐야 안녕’ 등 어린이들이 만든 게임의 제목에서 느껴지듯, 전래동화나 명작소설 같은 잘 알려진 이야기에서부터 게임의 발상을 시작한다. 그리고 어린이의 시선으로 재구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어 간

다. 참가 어린이들이 선택한 이야기나 장면에 캐릭터와 규칙을 부여하고 이야기에 게임 방식, 점수를 내는 기준 등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을 어린이 스스로 구성하고 설계하는 것이 바닥 놀이 워크숍의 핵심이다. 게임을 완성한 어린이들은 두산아트센터 바닥에 테이프를 활용해 놀이판을 만들고, 그 공간 안에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즐겼다. 공연 관람과 같은 수동적인 방식의 문화 체험이 아닌, 이야기와 공간의 주인공이 되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놀이 방식을 찾아 나가는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에는 두산아트센터 투어를 통해 백스테이지를 돌아보고, 각자 가진 장기들을 선보이며 마무리했다.

군내초등학교의 김희숙 교감은 “스스로 놀이 방식을 정하고, 만들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창조적인 발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특별한 시간이었다”며, “모두가 워크숍에 열중하고 몰입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수업 소감을 밝혔다.

수업을 진행한 놀공발전소의 임애련 대표는 “놀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타인과 나의 규칙을 만들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조원들과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대해 배우게 된다”고 수업의 의미를 피력했다.

두산어린이아트스쿨은 2017년 11월 14일까지 철원 서면초등학교, 부산 주학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했으며, 2, 3차에서는 스스로 기획하는 무용창작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아트 바디 챌린지’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두산어린이아트캠프는 해마다 새로운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놀이를 통해 창조성을 키우고, 사회를 배우다

두산연강재단 ‘두산어린이아트스쿨’

12

두산어린이아트스쿨

w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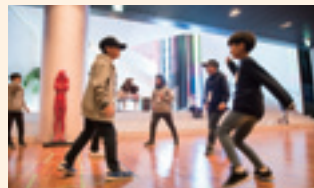
서울교육복지우선학교,
중소도시 작은학교
초등학교 고학년

what

전시 및 공연 관람,
두산아트센터 투어,
예술가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02



01~02

두산어린이아트스쿨 바닥놀이 워크숍 사진

03



03

한기미술관 전시관람 모습

01



01

LG 꿈꾸는 프로듀서

who

교육복지우선학교 및
문화소외지역 학교

what

공연관람, 방문교육 등을
통한 공연예술분야 직업
체험 프로그램

13

공연을 통해 꿈을 찾는 공연예술 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

LG연암문화재단 '꿈꾸는 프로듀서'

“배우가 되고 싶은데,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요?”

“자신감을 갖고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모든 걸 즐기려는 태도를 갖고 도전하세요.”

무대를 향해 뜨거운 박수를 보내던 청소년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질문을 던지고, 연극 <골렘>의 배우 필리파 함블리(Pilippa Hambly)와 제니 던(Jennie Dunne)은 성실한 대답으로 성원에 화답했다. 공연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찬 이 중학생들은 한국메세나협회와 LG연암문화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공연예술 분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2017 LG 꿈꾸는 프로듀서'에 참여해 연극 <골렘>을 관람한 학생들이다.

흥미로운 공연예술, 진로교육으로 활용하다

수업과 시험 대신 실습이나 직장체험 활동과 같은 수업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 전국 시행에 발맞추어 LG연암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LG아트센터를 통해 공연예술분야 직업 체험 프로그램 'LG 꿈꾸는 프로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연 관람을 통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관람한 공연의 예술가와 대화를 통해 공연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LG아트센터 임직원이 학교를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복지우선학교 및 문화소외지역 학교를 주로 선발한다.

11월 17일에 진행되는 2차 'LG 꿈꾸는 프로듀서'는 서울 중랑중학교, 서울 화원중학교, 경기도 광주시 신현중학교, 양주시 덕정중학교, 수원시 수원동성중학교 5개 학교의 900여 명의 중학생들과 함께했다. 이날 관람한 공연은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젊은 극단 '1927'의 연극 <골렘>이었다.

공연을 관람한 학생들은 이후 LG아트센터의 임직원들과 함께 학교 안에서 공연예술 분야의 진로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꿈과 목표를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02



03

01~03

LG아트센터에 모인 900여 명의 중학생들이 열띤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Painted by JOTUN



조광요턴주식회사
CHOKWANG JOTUN LTD.

618-230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96 (지사동)
TEL.051-797-6000 FAX.051-711-7735



태양과 바람이 사는 곳

한줄기 태양빛이 이건의 기술을 더하면
사람과 건물을 위한 무한에너지가 됩니다.

이건사옥에 최초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미래의 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 아름답게, 더 편안하게-
대한민국의 생활공간을 한층 더 높이려는
이건 사람들의 노력이 함께합니다.

원일의 음악에서 일상의 자유로움을 본다.
아등바등 자신을 내세울 필요도,
애써 숨길 필요도 없이 스스로를 드러내기만
해도 감흥을 만들어내는 그의 음악에서,
언제나 태연자약한 자연의 모습과도 같은
경이로움을 느낀다.

잘 알려졌다시피 원일은 국악계의 대들보로 창작과 공연 분야에서 큰
족적을 남겼다. 무형문화재 제46호 대취타, 피리 정악 이수자이면서
국립무용단 음악감독을 지내기도 했고, 2001~2012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교수로 재직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 사상 최연소
예술감독(2012~2015년)으로 화제를 모으더니, 느닷없이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두문불출하고는 모든 장르에 구애됨 없는 ‘음악인’으로써 다시 나타났다.
최근엔 국립극장 ‘여우樂(락) 페스티벌’의 예술감독으로, 다가오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음악감독으로 새로운 예술세계를 선보일 터다. 연주자, 작곡가,
교수, 예술감독, 그리고 밴드 리더로 매순간 활동 스펙트럼을 넓혀온 그다.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최상의 음악적 환경 속에서 영광을 누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지만 자신의 숙명처럼 겸허하게 섭렵했다.
나이 50, 오십이지천명(五十而知天命)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에게는 고상한
가식이 아닌, 자유로운 품격이 느껴지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이지 싶다.
그저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만 음악을 자연스럽게, 음악을
운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아는 듯했다. 원일의 음악은 참
분방하고 깨끗할 것 같다.

예술감독 원일

비정형의 정형,
소리의 미래를 만드는 사람

WON IL

원일의 음악은 특정 장르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규범적이지 않다는 말이지요.

예전에 공연을 마친 후 관객과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평생
이러한 충격적인 공연은 처음 경험해본다!” 충격이라는 표현이 저마다
개인적인 차이일 수 있겠지만, 그 관객은 어림잡아 50년 가까이 다양한 음악을
접해온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저의 음악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니, 그날 매우
보람된 기분을 느꼈죠.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항상 그러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거든요. 일상의 소리를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시적인
메시지로 표현하는 앰비언트 록(Ambient Rock; 환경음악의 일종으로, 소리의
질감을 강조해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과 가깝죠. 저는 일상을
경험하면서 언제나 새롭게 들려오는 소리를 녹음해 음악 작업에 관찰시키려고
합니다. 음향적인 확장을 위해 다양한 기기들을 많이 구하기도 했지요. 일상의
소리를 표현하는 음악이 비대중적인 음악이라는 것은 꽤나 아이러니이기도
한데, 여하튼 이해하기 쉽지 않은 공연에 사람들이 찾아와준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작품 중에는 전통적인 어쿠스틱뿐만 아니라 전자음악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정통 국악 교육을 받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하기도, 또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처럼 제도권 하에 있었던 분이라는 게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1990년대 중반 무렵 앰비언트 음악을 많이 듣다가 자연스레 브라이언 이노의
음악을 접하게 됐습니다. 음악적 표현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던 때였고,
그래서 전자음악의 가능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도전 의욕이 샘솟았죠.



“50세가 되기 전에 굴레를 벗어버리고 독립적으로 뭔가 색다른 음악을 만들어보자”고 결심한 것이 그 즈음의 일이었어요. 자유로운, 얽매임 없는, 무한한 확장의 작업을 하고 싶었죠. 창조적인 예술가로서 숙명 같은 음악을 영원히 하고 싶다는 것, 원일만의 음악을 하고 싶다는 것, 전통 그대로의 음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모든 직위에서 내려올 때 각오였어요. 한결 마음 편하게, 하지만 거침없이 작업했고 많은 자극을 받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세상을 나만의 시선으로 보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일까요, 원일의 음악을 들을 때 비정형 음악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떤 논리적인 맥락이 얹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악은 소리의 질서라고 설명할 수 있죠. 음악은 인간의 오랜 즐거움이 되어왔어요.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음향에 대한 다양한 실험이 시도되면서 어떤 결과물은 공해로 취급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극단적인 소음(Noise)은 원하지 않아요. 다만 일상의 소리, 적당한 소음은 인간에게 안정감을 주고 치진 마음을 쉴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입니다. 흡사 커피숍의 조용한 소음을 떠올리면 맞을 겁니다. 이런 부류를 자율 감각 쾌락 반응(ASMR;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이라고도 말하는데 음악의 경우 청각적인 자극을 통해 혹은 인지적 자극에 반응해 나타나는, 감각적 즐거움을 꾀하는 거죠. 저는 자연의 소리, 일상의 소리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나름의 논리죠.



03



01



02

**다시금 전통 장르의 음악을 하고 싶다는 욕심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상자로서 오리지널을 듣는다는 것과 창작자로서 오리지널을
대하는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음악가들이 하고 있고
대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까지 해야 할까'하는 생각도
들고요(웃음). 다시 오리지널의 재현 작업을 하기엔 너무 먼 거리를
온 셈이죠. 해체하기, 낫설게 하기, 멀리 가보기 등을 통해서 새로운
영역을 탐험해보고 있는 와중입니다. 비정형이 주는 긴장감,
흥분감을 사람들에게 경험해보도록 하고 싶어요.

자신에게 국악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제가 국악을 만난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어요.
어릴 적 음악을 좋아해 소리에 호기심이 컸고, 여러 친구들과
놀이보다는 피리를 불고 노래를 하며 혼자 노는 것을 더 즐겨했죠.
국악고등학교에 입학해 피리를 전공하면서 음악적 자양분을
국악에서 흡수했어요. 국악이 아니었다면 아마 서양음악을 했을
정도로, 결코 음악을 떠날 수 없었지요. 연주자로서, 작곡가로서
바라본 국악은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음악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리와 모든 음악을 결합시킬 수 있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접할수록 더욱 편해질 수 있는 음악이고, 창작자에게는 여느
음악보다 훨씬 광범위한 표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공연에서 예술감독으로, 음악감독으로써 음악
창작 외에 행정적인 역할도 일정 부분 맡을 수밖에
없는데요. 공연 부분에서 기업과의 파트너십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개인적으로 가본 곳 중에서 '갤러리 0914'가 떠오르는데,
기업과 예술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팝아트를 비롯해
현대인들의 소품, 장신구 등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많이
소개해왔어요. 그곳의 전시에서 기업과 예술이 절묘하게 합치를
이룬 작품들을 보며 '기업들이 예술의 심미적인 가치와 장점을
받아들이고, 예술가와 협력해 생산물을 만든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아직은 기업이 예술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어요. 예술가들은 지원을 바라면서도 대화 경로를 잘
모르고, 또 적극성도 떨어지고요. 그 역할을 한국메세나협회와
같은 곳이 해준다면 기업과 예술계가 서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머리를 맞대면 뭔가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련한 기업이 해안을 가지고
예술지원에 힘써줬으면 해요. 더불어 제 공연처럼, 조금은
비대중적인 예술에도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바랍니다. 하하. ▼



04

01~02

다양한 조형물이 가득한 원일의 작업실. 예수상(위쪽)과
불상(아래쪽)의 모습이 상상력을 자극한다.

03

수많은 음향기기들, 세계에서 가져온 악기들을 다루며
새로운 표현기법을 연구한다.

04

서울 대학로 한켠에 마련한 그의 작업실은 음악세계를
펼치기에 모자람 없는 안정적인 공간이다.

연말을 위한 와인



프레스코발디
니포자노 리제르바

로버트 몬다비
나파밸리 뤼에블랑

페블레
뤼 생 조르쥬

볼링저
스페셜뤼에 브룅

토레스
마스라 플라나

까테나 자파타
까테나 말벵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는 신동와인의 프리미엄 와인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미술 작가들을 위한 창작지원

1

제4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

‘종근당 예술지상’은 국내의 주요 미술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는 작가들에게 창작지원을 통해 작가로서 더욱 왕성한 활동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취지로 기획된 예술가 지원 사업이다. 2012년부터 종근당, 한국메세나협회,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와 함께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 & Business, A&B)’ 결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종근당 홀딩스는 매년 3명의 신진 미술작가를 선발해 1인당 연간 10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작가들의 전시기회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있다.

매년 수많은 신진작가가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황이며, 해마다 유망작가 중에 미술계의 중심에 진입하는 작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것이 현실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능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2차 지원 프로그램이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 장르 중 순수 회화 작가들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예술 분야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근당 예술지상 2015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다

2017년 10월 19일에 시작한 ‘제4회 종근당 예술지상 기획전’은 예술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종근당 예술지상 2015’의 작가로 선정된 안경수·이채영·장재민 등 작가 3명이 3년 동안 준비한 창작성과를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번 기획전에는 ‘완전하면서도 낯선 세계와의 조우’라는 부제 아래 총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안경수 작가는 2015년 독일의 국제 예술가 거주프로그램인 글로가우에어(GlogauAIR)를 비롯한 다양한 레지던시의 입주작가로 선정되는 등 국내·외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이채영 작가와 장재민 작가 역시 자신들만의 독특한 화풍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레지던시와 기획전에 참여했으며 최근 개인전을 통해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안경수 작가는 “종근당 예술지상에 선정되어 창작 지원뿐만 아니라 기획전을 열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작가에게 큰 행운”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아트스페이스 휴의 김노암 대표는 “종근당 예술지상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술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작가들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다”며 “향후 한국 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 신진 작가들의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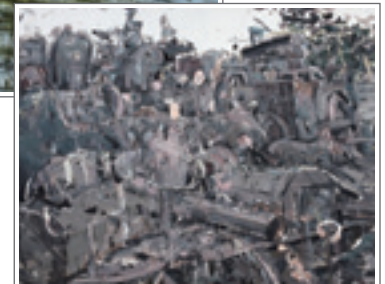
01
이채영 <재생>
2015, 180x230cm
한지에 먹

01



02
안경수 <부표 buoy>
2017, 230x180cm
acrylic on canvas

02



03
장재민 <돌 우리>
2017, 182x227cm
oil on canvas

03

동서식품 '제10회 맥심 사랑의 향기' 개최

2

10월 26일,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조양초등학교(교장 채병덕, 이하 조양초)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와 초등학교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해오름오케스트라가 '사랑의 향기'를 연주했다. '제10회 맥심 사랑의 향기'를 통해 지원받은 연습실과 악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연주였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맥심 사랑의 향기'는 나눔이 필요한 곳에 문화 자산을 후원해 사회 전반에 문화 예술의 향기를 나누자는 취지로 기획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동서커피클래식'과 더불어 동서식품의 대표적인 문화 나눔 활동으로 꼽힌다. 동서식품은 2008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10개의 초등학교 및 보육원 학생들에게 총 2억 1천여만 원 상당의 악기와 연습실 등을 지원했다.

이번 '제10회 맥심 사랑의 향기'에서는 조양초 학생들로 구성된 '해오름오케스트라단'을 비롯해 동서식품 관계자 및 교직원,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아노, 플루트, 클라리넷 등 새 악기를 전달하는 악기전달식이 진행됐다. 동서식품은 악기 외에도 낡은 연습실을 보수하고 악기 보관함을 교체하는 등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연습할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 25일 춘천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0회 동서커피클래식'에서 연주를 선보인 바이올리니스트 우예주와 춘천시향 단원 4명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일일 음악 선생님이 나서, 아이들에게 악기 연주법을 가르쳐주고 함께 연습한 곡으로 협연을 진행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우예주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미니 강연도 진행해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음악 수업을 담당하는 강성중 선생님은 “긴 오케스트라 연습을 통해 음악 외적으로도 어린이들이 배우는 게 많다.”며 긴 연습시간을 견디면서 집중력도 향상

되고, 일반 수업시간에도 그 차이를 확연히 느낀다. 또한 다른 악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친구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커지고, 우애도 돈독해져 인성교육으로도 매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서식품의 지원 덕분에 다목적실이던 공간이 오케스트라 전용 음악실로 변한 만큼, 음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서식품은 악기전달식 전날에 진행된 '제10회 동서커피클래식'에도 아이들을 초청해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수준급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춘천시립교향악단과 춘천 출신의 조재혁 피아니스트, 우예주 바이올리니스트 등 유수의 음악가들이 함께하는 공연을 보며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키울 기회를 제공했다.

동서식품 '맥심 사랑의 향기'는 앞으로도 단순히 문화 자산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인성을 키우고 그를 통해 보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게 하는 메세나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



신한은행 다문화 창작뮤지컬 제작 지원사업 인도편 <마살라 뮤지컬> 초연

신한은행은 다문화극단 샐러드와 함께 10월 30일 역삼동에 있는 신한아트홀에서 서울지역 초·중학생과 다문화가정 220여 명을 초청해 다문화가족 뮤지컬 <마살라 뮤지컬>의 초연무대를 가졌다. 신한은행은 2011년부터 외국 이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 다문화극단 샐러드와 함께 다문화 가족뮤지컬을 제작하는 '신나는 공연 한가족 다문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다문화 거점학교와 다문화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료 공연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마살라 뮤지컬>은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제작된 7번째 작품이다. 제목에 쓰인 '마살라'는 인도 향신료의 총칭으로써 인도 문화 콘텐츠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다. 이번 뮤지컬은 인도의 다양한 음악과 춤을 통해 인도 문화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인도 바라나시 출신 학생 '찌민'이 엄마와 함께 한국에 오면서 학교 친구들과 겪는 갈등과 화해를 담은 내용이다. 다채로운 인도 민속춤과 노래로 표현된 공연은 여러 가지 향신료가 모인 인도 음식처럼 독특한 매력과 감동으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극단 샐러드의 박경주 대표는 "국내 거주 이주민이 200만을 넘어서는 국내 환경에 맞춰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뮤지컬 제작을 지속하겠다"며 신한은행의 다문화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박경주 샐러드 대표 인터뷰

다문화극단 샐러드를 소개해주세요

2009년 창단한 극단 샐러드는 다국적 이주민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다문화극단으로, 이주민과 원주민의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을 통해 문화 다양성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고 문화 다양성의 확장을 위해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 예술영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샐러드의 공연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은 이미 시작됐고 급격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교육, 경제, 문화,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 다양성의 이해는 앞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다문화 이슈를 창작공연으로 풀어낸 샐러드의 무대가,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더욱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샐러드는 2011년부터 신한은행의 제작지원으로 아시아 문화를 소개하는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 무료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네 팔, 중국, 필리핀,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문화를 소개했으며, 작품들의 누적 관객은 3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극단 샐러드의 앞으로의 계획과 꿈은 무엇인가요?

더욱 완성도 있는 작품을 제작해 대학로에서 오픈된 공연을 하는 것이 샐러드의 꿈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문제를 공연예술로 풀어내는 극단으로서 오랫동안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길 희망합니다. 극단 샐러드를 오랫동안 지원해주신 신한은행에 이 지면을 통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신한은행의 지원이 더욱 의미 있는 에너지가 되도록 샐러드 단원들과 함께 앞으로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현대백화점 & 춘천마임축제의 ‘팝업 마임쇼’

현대백화점은 예술형 지역축제와 콘텐츠를 발굴하여 백화점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기획해보고자 전국지역축제를 틈틈이 검색하던 중 일상적으로 쉽게 만나기 어려운 ‘마임’을 주제로 한 춘천마임축제를 주목하게 되었다.

‘백화점에서 제대로 선보인 적 없는 마임을 춘천마임축제와 연계하여 진행해보면 어떨까’에서 착안하여 시작된 이번 콜라보레이션은, 춘천마임축제 총감독·사무국장과 많은 회의 끝에 실내 홀에서의 공연이 아니라 매장 동선에서 상품과 고객 상황에 따라 즉흥 연출하고 친근하게 교감하는 현장 감응형 콘셉트로 백화점만의 마임 콘텐츠를 창작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한편, 일부 지점에서만 실험적으로 시도해보자는 첫 계획은 현대백화점 개점 테마 ‘더현대 팝업쇼’ 연계 이벤트로 8개 지점에서의 ‘팝업 마임쇼’ 진행으로 확대되었고, 춘천마임축제 사무국은 공간 특성에 따른 공연을 프로그래밍하고, 국내 최고의 코미디 마임 퍼포먼스 팀과 퍼포머를 캐스팅했다.

예술단체들은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했다. 현대백화점과 춘천마임축제 사무국이 준비한 ‘팝업 마임쇼’는 울산점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8개 지점, 1일 6회씩 총 48회에 걸쳐 공연되었고, 전국에 마임 장르의 매력을 선보였다.

백화점 매장, 광장 등 실내·외 곳곳을 다니며 고객과 함께 즐기는 공간 이동형 마임 퍼포먼스 ‘마네킹 일루전 & 슈트맨 퍼포먼스’, 클래식 연주와 마임·현대무용의 콜라보 공연, 마술·벌룬아트·버블 등 많은 볼거리를 선사하는 마임 광대의 서커스 공연, 마리오네트 공연까지 평소 보기 힘든 마임 예술이 다양하게 소개되었고 예술가들은 백화점을 찾은 고객들과 친근하게 소통했다.

대화로 공감하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말없이 이미지를 전하는 마임 장르의 특징은 세련되고 이색적인 마임 퍼포먼스를 통해 잘 구현되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쇼핑으로 익숙한 백화점 공간 내 예상치 않은 장소에서 고객들에게 유쾌하고 놀라운 경험과 즐거운 추억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팝업 마임쇼는 말없이도 충분히 통했고 따뜻한 호응을 얻었다.

관객들은 “갑작스러운 이런 공연이 선물같이 느껴졌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힐링이 되는 공연이었다”, “마임은 처음인데 신선하고 재미있다” 등 긍정적인 공감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팝업 형태로 장소별 연속 공연이 진행되면서 즐거운 분위기가 백화점 전체에 지속되는 효과까지 있었다.

팝업 마임쇼 이후 현대백화점은 대한민국 쇼핑관광 대표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중 백화점을 방문한 가족 동반 고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마임 공연과 대형 뮤지컬을 춘천마임축제와 함께 진행했다. 공연을 마치며 클라운들이 나누어준 빨간 광대코를 저마다 코에 끼운 채 서로 웃으며 공연장을 나가는 관객들의 모습은 공연 이상의 즐거운 볼거리였고 마음을 무장해제시키는 마임의 효과였다.

현대백화점은 내년 축제·참여·체험 프로그램이 추가된 ‘THE HYUNDAI 마임 FESTA(가칭)’ 개최를 계획 중이며, 세계3대 마임축제로 꼽히는 춘천마임축제가 계속해서 도심의 대중과 소통하고 외연을 확장하도록 협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다른 문화예술 단체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콘텐츠 확대, 새로운 장르의 제시를 꾀하고 바람직한 문화예술 공헌과 문화 마케팅의 좋은 사례를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다. 



오페라로 풀어보는 인문학 퍼즐 <오페라로 사치하라>

예술지원 매칭펀드 - 유구이앤씨 & M컬처스

오페라를 활용해 다양한 인문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 M컬처스가 지난 10월 14일 토요일 심산아트홀에서 공연을 진행했다. M컬처스와 서초문화재단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유구이앤씨가 후원하는 <오페라로 사치하라>의 테마는 16~17세기 오페라를 탄생시킨 유럽의 여러 도시로의 시간 여행이다. 유구이앤씨와 M컬처스는 2017년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공연장은 공연 시작 전부터 가득 메운 인파로 북적였다. 이번 공연은 도서 <오페라로 사치하라>, KBS <명작스캔들>, EBS <세계테마기행> 등의 방송 활동으로 친숙한 성악가 신금호 대표의 해설이 어우러졌다. M멤버 오케스트라의 비발디 <사계> 연주로 공연을 시작했으며,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라보엠>, <세비야의 이발사> 등 총 11개 작품의 대표곡을 선보였다. 신금호 대표는 각 작품의 내용과 창작 배경을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간략하고 재미있게 설명했다. 또한 성악가들의 등장 전, 각 곡이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영화의 영상을 활용해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노래 중에는 자막으로 관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공연 후 한 관객은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보기에도 좋았지만, 오페라가 익숙한 사람이 보기에도 깊이와 재미가 있는 공연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공연을 진행한 M컬처스는 2006년 신금호 대표가 오페라M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다. 현재는 서울시 전문 예술단체로 지정되어 매년 10회 정도의 기획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으며, 오페라단과 오케스트라를 두고 공연의 기획 과정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대기업 초청 행사 등 각종 협력 공연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연주와 여행을 결합한 오페라 테마 여행을 격년 주기로 진행해 대외적으로도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서포터들의 활동이 눈에 띄는 민간 클래식 공연 단체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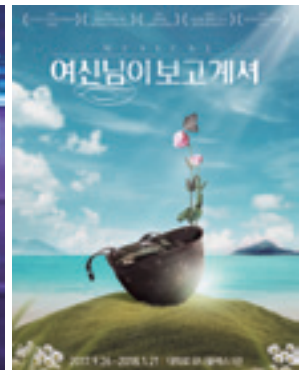
창작뮤지컬의 흥행 신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계셔>

예술지원 매칭펀드 - 지승컨설팅트 & 극단 연우무대

창작뮤지컬의 살아 있는 흥행 신화로 불리는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가 9월 26일부터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에서 공연 중이다. 이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데 큰 힘을 실어준 지승컨설팅트와 극단 연우무대는 올해로 3번째 예술지원 매칭펀드 결연을 맺었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2011년 CJ 크리에이티브 마인즈 선정을 시작으로 2012 서울뮤지컬페스티벌 예그린앙코르 최우수 선정작으로 뽑혔으며, 2013년 1월 충무아트홀 소극장 블루에서 초연 당시 객석 점유율 95%를 기록하는 등 그 해 창작뮤지컬 최고의 기대작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13년 국회대상 올해의 뮤지컬상 수상을 거머쥐는 등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2013년 5월 아트원씨어터 1관에서 재연을 진행했으며, 2014년 4월 소극장 창작뮤지컬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중극장 규모의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 공연을 올렸다. 또한 2014년 9월 일본 세타가야 퍼블릭 씨어터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쳐,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탄탄한 대본과 아름다운 음악, 무대로 관객들의 신뢰와 사랑을 꾸준히 받은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의 극 중 배경은 총성이 빗발치는 한국전쟁 가운데 있는 조용한 무인도이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한국군과 북한군이 이곳에 표류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서로를 적대시하지만, 점점 서로 마음을 나누고 믿음을 쌓게 된다. 오로지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남북한 군인들은 '여신님이 보고 계셔'라는 작전을 펼치며 미움과 다툼, 상처가 난무하는 전쟁 속에서 희망과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전한다.

뮤지컬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꿈을 떠올리게 해 공감대를 자극하는 등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이야기와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아름다운 가사-노래로 관객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에 작품은 '무인도 앓이', '여신 앓이' 등 신조어를 끊임없이 만들며, 일명 '여보셔 신드롬'을 형성하기도 했다. 



최저시급 6,470원에 담긴 우리 사회의 모습 <6470展>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 서울문화재단 & 올림푸스 한국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가와 시민이 사진으로 소통하는 프로젝트 '영뚱한 사진관 for 대학로'의 결과전시 <6470展>을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서울연극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한국매세나 협회 '2017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지원과 올림푸스 한국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5년,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시작된 '영뚱한 사진관'은 청년, 가족을 이슈를 풀어낸 전시장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대학로로 배경을 옮긴 이번 프로젝트는 '동시대 사회 이슈'를 주제로 잡았으며,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시각 예술가 김현기, 신연식, 이나는 작가로 구성된 '아티스트 105호'팀을 선정했다. 이번 전시는 예술가이기 이전에 평범한 20대의 눈으로, 최저시급 '6470'이라는 숫자를 사진으로 풀어냈다.

아티스트 105호의 대표인 김현기 씨는 "노동을 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6470원으로 느낄 수 있는 삶의 행복은 터무니없이 작다."라며 "이번 프

로젝트를 통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6470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6470展>은 20대부터 50대에 이르는 19명의 참여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6470원이라는 숫자로 담았다. 편의점, 홀서빙, 과외, 콜센터 등 50여 개의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과 세계지도, 가방, 월세, 학비 등 각자에게 의미 있는 지출의 결과물을 전시한다. 이 밖에 참여자들이 직접 밝히는 '나에게 6470원이란' 화보와 최저시급 6,470원만큼의 물건 가치를 보여주는 '6470/N' 전시, 참여자들의 인터뷰로 구성된 '6470 다큐멘터리' 등도 준비됐다. 이번 '영뚱한 사진관 for 대학로'의 모든 결과물은 올림푸스 플래그십 미러리스 카메라와 렌즈로 촬영했다.

또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팝업 사진관'을 운영하고, 촬영된 사진은 현장에서 출력해 참여자가 소장할 수 있게 했다. 센터 1층에 위치한 '마음약방' 자판기에서는 마음치유 선물 패키지 '마음약방-영뚱한 사진관 <6470展> 스페셜 에디션'을 제공하기도 했다. 

학교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 선율 <NEXT Classic>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 강원문화재단 & 벽산문화재단, 벽산엔지니어링



한국메세나협회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사업에 참여하는 강원문화재단은 벽산문화재단, 벽산엔지니어링과 함께 학교 방문 공연 <NEXT Classic>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양양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된 트리오드서울의

공연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강원도 6개 중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가 개최됐다.

<NEXT Classic>(이하 넥스트 클래식)은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예체능 과목을 활성화하고, 음악인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문화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벽산문화재단이 2012년부터 진행해온 문화공헌사업이다.



넥스트 클래식은 '클래식 공연의 미래 관객이 될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음악의 재미와 가치를 전달한다'는 뜻으로 유명 연주단체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유쾌한 해설을 곁들여 생생한 클래식 음악을 선사한다. 한국메세

나협회와 함께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2016년부터 강원도 지역으로 확대했고, 올해 공연은 트리오드서울, 세종솔로이스츠, 한국페스티벌앙상블과 강원지역 연고 연주단체인 코맨이 참여했다. 강원문화재단과 관계자는 "앞으로 기업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강원도로 유치해 문화예술로 도민의 삶이 풍족해지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햇살을 나눠 웃음을 키웁니다

태양에너지를 나누는 해피선사인 캠페인

한화는 2011년부터 전국 217개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태양광으로 절약된 에너지 비용은 도서관, 공부방 등에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다양한 혜택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따뜻한 빛을 선물하는 햇살처럼
함께 자라는 내일을 해피선사인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붕이 햇살로
에너지를 만드네요

밤에도 햇빛이
여쭙는데요!



한화 해피선사인 캠페인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주택 등
전국 217여 곳에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중국 닝샤 사막에 태양광 양모장을 기증,
26만 그루의 나무로 사막방지화 숲 조성

중국 빈곤지역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기증한 한화-희망공정 해피선사인

전깃불만큼이나
반딧불이도 많은
청정한 세상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고,
흘려보내던 전기를 저장했다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하는 기술

지금 우리 세대를 위한 혁신을 넘어
다음 세대의 더 나은 삶에도 기여하는 혁신
LG의 에너지 솔루션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옳은미래.



전기차
배터리 / 부품



고효율
태양전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스마트
빌딩 시스템

Innovation for a Better Life



문화CSR 해외 현지 워크숍

한국-싱가포르,
문화예술 정책·지원
방향을 생각하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지난 9월 6~9일, 싱가포르에서 문화CSR 해외 현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화, LG연암문화재단, CJ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삼양홀딩스, 삼성문화재단, 대원문화재단, 동서식품, 동아제약, 한국약품이, 현대차 정몽구 재단, 신세계, 종근당홀딩스,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등이 함께했다. 우리 방문단은 싱가포르의 문화예술 기관과 기업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싱가포르 예술계 현황을 알아보며 싱가포르 기업과 예술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싱가포르 간 문화예술 정책 비교를 통한 방향 모색

우리 방문단을 반긴 곳은 싱가포르 국립예술위원회(Singapore National Arts Council)였다. 국립예술위원회는 싱가포르 국민들이 일상생활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향유하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부 산하기관이다. 우리는 국립예술위원회 부회장, 기업협력 담당자, 예술후원 담당자, 국제 교류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갖고 싱가포르의 예술 대중화와 지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국립예술위원회의 예술기금 분배 정책과 역할, 전통예술 지원 정책, 어린이 예술교육에 대해 많은 대화가 오갔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는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정책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환경 조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다.

이번 워크숍 일정 중에는 싱가포르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한 여러 다국적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질 기회가 있었다. UOB(United Overseas Bank), Bloomberg, Credit Suisse, Deutsche Bank 등 14개 기업과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싱가포르 측에서는 금융 기업인 UOB에서 올해의 미술전(UOB Painting of the Year) 사례를 소개하며 예술과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소개했다. 우리 측에서는 한국메세나협회의 역할과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 사례를 전달했다. 싱가포르 측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의 사례를 주의 깊게 들으며 후원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에 많은 질문을 던졌다. 특히 한화그룹의 '한화예술더하기', LG연암문화재단의 LG아트센터 문화공헌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예술의 미래를 위한 국가 주도의 투자 정책

싱가포르는 작은 국토를 가진 나라이지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다. 곳곳에서 많은 문화시설, 예술공간을 만날 수 있었다. 그중 인상 깊었던 곳은 싱가포르 국립미술관(Singapore National Gallery)이었다. 여기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현대 작품을 8천여 점 이상 보유한 미술관으로, 다국적 기업들의 후원 하에 UOB Southeast Asia Gallery, DBS Singapore Gallery, Keppel Center for Art Education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당대 최고의 명작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여러 시설과 전시를 둘러본 후 국립미술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미



술관의 재원 조성과 국제 협력을 주제로 많은 토론이 오갔다. 특히 기업의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를 위한 전시를 기획하고, 기업에게 다양한 투자 수익률을 제시하며 명칭사용권을 적극 제공하고 있다고 해 주목을 끌었다.

방문단이 찾아간 또 다른 문화예술 인프라는 에스플레네이드(Esplanade)극장이었다. 2천 석 규모의 극장, 1천800석의 콘서트홀, 250석의 리사이틀홀, 220석의 연극 스튜디오를 갖추고 연 3천 회 이상의 다양한 공연을 개최하는 핵심적인 문화예술 공간이다. 가장 인상적인 시설은 단연 콘서트홀이었는데, '아시아의 카네기홀'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음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중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70%의 관객에게 무료 공연 혜택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감탄을 자아냈다.

이곳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벤슨 푸아(Benson Puah) 극장 대표를 비롯해 인사팀장, 지역사회 결연팀장, 스폰서십 팀장, 기업후원 팀장, 파트너십 팀장이 극장과 지역 사회의 연계, 기업 후원 체계에 대한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벤슨 푸아 대표는 "기업이 문화공간을 운영할 때는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해 방문단의 호응을 얻었다.

작지만 큰 나라, 아시아 시장을 타깃으로 한 싱가포르의 문화예술 역량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뜻깊었던 장소는 마리나 베이 샌즈(Marina Bay Sands)였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쌍용건설이 지은 복합리조트 시설로, 호텔·쇼핑몰·카지노·컨벤션·공연장·미술관을 갖춘 57층 규모의 건물 3개가 범선 모양의 스카이라인을 받치고 있는 외형으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라 할 수 있다. 이곳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싱가포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

고 있는데, 관광객과 시민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부대시설인 아트사이언스 뮤지엄(ArtScience Museum)은 '예술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전시를 시도해 싱가포르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한다.

마리나 베이 샌즈는 자체적인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 'Art Outreach IMPART'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3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신진 예술가들을 데뷔시키는 IMPART 어워즈를 개최해 신진 예술가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현대 예술이 동남아시아의 새로운 주류로 떠오를 수 있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도시국가임에도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을 통해 선진국으로 자리잡았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싱가포르의 특징은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 접근 전략에도 효과적으로 이어져, 이제는 아시아 전역의 문화 허브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 다문화 민족이 모여 사는 국가이지만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국제 금융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정부와 금융 기업들의 협력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 해외 워크숍에서는 싱가포르의 문화마케팅 활동 목표는 관객, 신진 예술가 그리고 미래 후원자를 개발함으로써 예술이 대중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가 주도 시스템 안에서 각 기관과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술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과 기업경쟁력’ 세미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정부·예술 3각 파트너십을 생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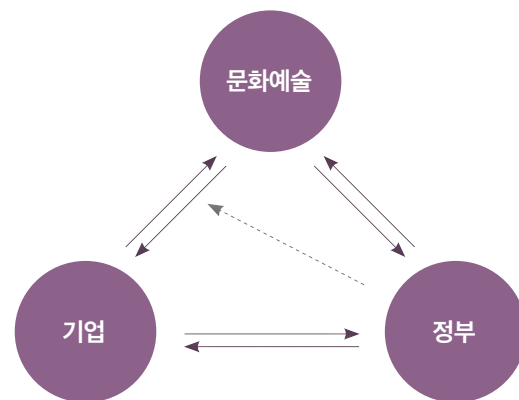
한국메세나협회는 10월 3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의 교보생명빌딩 컨벤션홀에서 ‘문화예술과 기업경쟁력 : 기업-정부-예술간 3각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과 소비활동의 현황과 기대 목적, 실제 효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해외 사례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된 다각적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연구를 진행한 연세대학교 신동엽 교수, 한준 교수는 기업-정부-문화예술계간 3각 파트너십 모형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문화예술 지원과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선철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가 사회자로 진행을 맡았고, 신동엽 연세대학교 교수와 한준 교수, 노그림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전문연구원, 이수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섰다. 한편 지정토론 패널로는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와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도영 넥슨 인재문화팀 팀장이 참여했고, 이밖에 기업 담당자와 문화예술 종사자, 예술단체 대표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기업·국가 경쟁력 확보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상호 파트너십이 필요

신동엽 교수는 첫 번째로 무대에 서서 ‘기업·정부·문화예술계 간 3각 파트너십’에 관한 주제 발표에 나섰다. 신 교수는 “기업과 정부는 단순한 후원 형태의 예술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문화예술계 쌍방의 이익을 도모하는 파트너십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계와 함께 동반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파트너십이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역설했다.

기업·정부·문화예술계 간 3각 파트너십



노그림 전문연구원은 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활동이 기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노 전문연구원은 “문화예술이 기업의 영리적 성과에 잠재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기업 이미지와 브

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매출이 증대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구성원들에게 자긍심 부여, 조직 창의성 향상 등의 효과와 함께 향후 세제상의 혜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뒤이어 한준 교수는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예술 지원 관련 기업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 교수는 문화예술 지원활동 현황, 기업에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기대 효과와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설명하면서, “종합적으로 문화예술 지원활동을 실시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중간 정도의 만족도에 그친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 활동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므로, 기업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화두가 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문화예술 지원의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는데, 실제로는 지원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교수는 “기업들이 문화예술 지원 활동을 시행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기업과 정부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활성화 정책 방향에 대해 압도적인 수의 기업들이 세제상의 혜택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여러 문화 선진국들의 사례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메세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이어서 이수현 연구원은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 역할에 대해 문화 선진국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이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설명하면서 “각국의 문화예술 정체성의 환경적인 토대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러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국가별로 고유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치적·사회적 환경이 다르므로 예술가의 후원에 대한 일치된 견해가 없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밝혔다.

문화 선진국의 세제 지원 혜택과 파트너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신 교수는 그동안 진행된 연구의 결론과 제언을 발표하면서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형태를 촉진자형, 후원자형, 건축가형, 기관사형 등 네 가지로 설명했다. 힐만 차트랜드와 매코히(Hillman-Chartrand and McCaughey, 1989)의 연구를 인용한 신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준독립(Quasi-independent)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예술을 지원하는 후원자형과 중앙정부의 문화부서를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문화정책을 집행하는 건축가형 지원 정책이 결합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는 국가가 기부자를 위한 세금 정책을 통해 예술에 대한 개인적 지원을 촉구하는 ‘촉진자형’을 추구해야 하며, 파격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받는 미국과 다양한 파트너십 사례를 만들어가는 영국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정토론에서는 이선철 대표를 사회자로 하여 주제 발표자 4명과 김세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도영 넥슨 인재문화팀 팀장 등이 자리해 예술지원과 기업 경쟁력, 기부문화 등 다양한 주제의 논의를 진행했다. 이선철 대표는 “기업과 정부, 문화예술계가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이 결코 녹록한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오늘의 세미나가 이러한 아젠다를 널리 유통하여 상호 간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한국메세나협회도 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CROWN

빅파이

자몽 Grapefruit



초콜릿과
비스킷이 반반!

새로나온
자몽맛!



오리지널
딸기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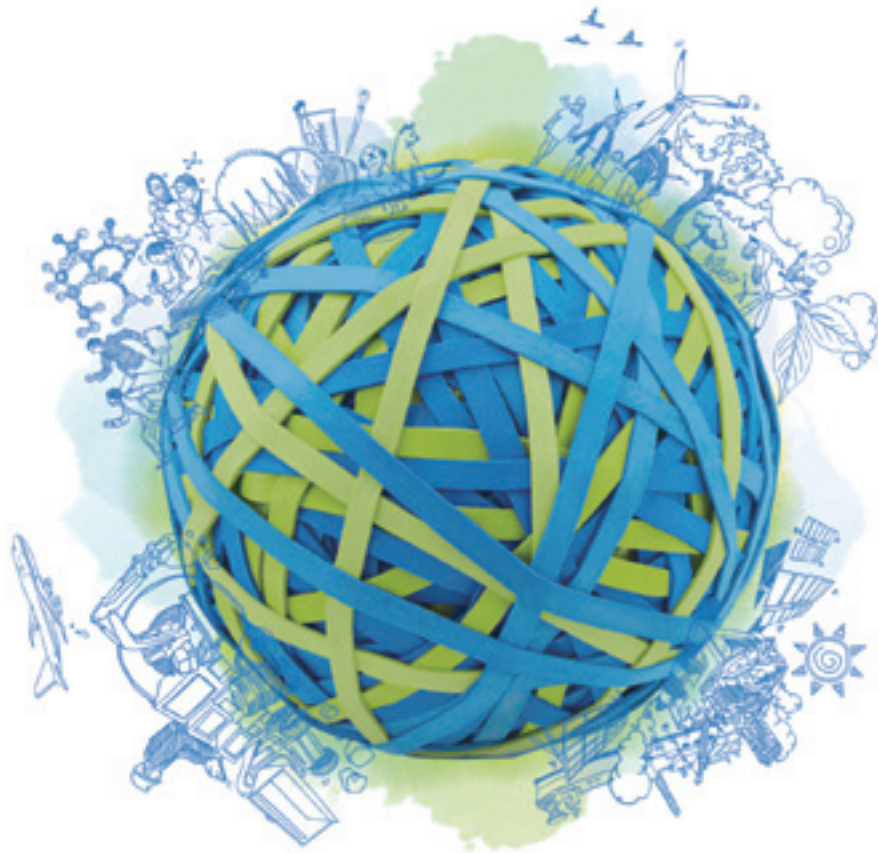
글로벌 소재산업의 강국
유니드가 앞장서서 나아가겠습니다.



• 화학사업부 : 가성칼륨, 탄산칼륨, 염산, 액염, 차아염소산소다, 염화철 • 보드사업부 : 중밀도섬유판 (MDF), 원목, 제재목, 포르말린

유니드는 환경을 생각하며 미래를 꿈꿉니다!

▶ 주 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패럴타워 17층
▶ Tel: (02)3709-9500 ▶ Fax: (02)3709-9590 ▶ Homepage: www.unid.co.kr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는

GREEN PARTNER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수많은 기업들과 더불어 성장하며 반세기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매출의 성장보다 고객의 성공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초화학, 응용소재, 첨단복합소재 전문기업 **동성코퍼레이션**



세계 최고 수준 협연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무대 KBS교향악단 2018 시즌 오픈

KBS교향악단이 2018 시즌 티켓을 오픈 했다. 기존 정기회원 모집을 시작으로 12월 1일 신규 정기회원 모집, 같은 달 11일 일반 티켓을 오픈할 예정이다.

KBS교향악단의 2018 시즌은 크게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바그너, 말러,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독일 후기 낭만주의 거장들의 대작 연주, 둘째 베토벤, 멘델스존, 브람스 등 독일 정통 관현악 레퍼토리, 셋째 차이코프스키, 무소륵스키에서 프 로코피예프, 쇼스타코비치로 이어지는 러시아 음악의 대표 작품 컬렉션, 넷째 브리튼의 <전쟁 레퀴엠>, 루치아노 베리오의 <신포니아> 등 20세기 근·현대 음악 집중 기획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다.

피아니스트 엘렌 그리모, 클래식 아카펠라 그룹 스윙글 싱어즈, 여성 트럼페터 티네팅 헬세트 등 화려한 연주진들이 한국의 교향악단과는 최초로 협연할 예정이다. 또한 정명훈, 타다아키 오타카, 알렉산트라 라자레프 등 명성 있는 세계 최고의 지휘자

들도 KBS교향악단과 함께한다.

1985년 처음 도입된 정기회원제도는 32년간 유지된 KBS교향악단만의 전통적인 회원제도로 연간 12회의 정기연주회를 40%할인된 가격으로 본인이 선택한 지정 좌석에서 관람할 수 있다. 현재 1,000여 명의 정기회원이 있으며, 티켓 일반 오픈 전 정기회원에게도 먼저 좌석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다. 이외에도 연간 가입비 3만 원을 내면 한 공연당 1인 2매까지 2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K-Lang 회원제도가 있다.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의 특별한 공연 신세계, 한빛예술단 문화홀 순회연주 지원

신세계는 시각장애인 연주자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한빛예술단의 문화홀 순회연주를 지원했다. 한빛예술단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구성된 세계 유일의 연주단으로, 시각장애인 특유의 뛰어난 음감으로 탄탄한 실력을 갖춘 단체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악보와 지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전곡을 외워서 연주하는 물론 지휘 없이도 오케스트라 연주자 가능한 매우 특별한 호흡을 자랑한다. 한빛예술단은 한빛오케스트라, 한빛윈드오케스트라, 챔버오케스트라, 타악양상블, 현악양상블, 브라스양상블, 첼리티중창단, 팝밴드 블루오션 등 8개 팀으로 나

누어 운영되고 있다.

2017년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이번 공연은 명작영화 OST를 주제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대구점, 경기점, 의정부점 등에서 진행되었으며, 600여명의 관객들이 한빛예술단의 공연과 함께했다. 이번 신세계의 지원으로 한빛예술단은 다양한 공연 기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각장애인 연주자를 발굴하고 연습환경 또한 개선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 소셜벤처기업을 지원하다 현대백화점그룹 '사회적기업 패셔니스타 지원 프로젝트' 선정

문화예술 소셜벤처기업 세일링드림이 현대백화점그룹이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패셔니스타(Passionista) 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되었다. '패셔니스타 지원 프로젝트'는 현대백화점그룹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선발해 집중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 선정으로 세일링드림은 앞으로 3년간 총 1억 원의 운영자금과 마케팅, 영업, 문화공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 지원 자문단'의 컨설팅과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세일링드림은 이번 지원을 바탕으로 2018년 하반기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현재 보유한 뮤지컬 <비커밍맘>을 장기적으로 공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세일링드림은 2014년 아름다운 가족 완성을 위한 가족성장뮤지컬 <비커밍맘>을 기획, 제작하여 척박한 공연 시장에서도 연간 1~2회 백암아트홀에서 공연을 열어왔으며, 2014년 초연 이후 매년 유료 관객 수 25% 이상을 모객하며 차근차근 성장하고 있다.



제6회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GS칼텍스문화재단

지난 2017년 10월 31일 GS칼텍스예술마루의 후원으로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제6회 정기연주회가 개최되었다. 신병은 시인의 시모음 낭송과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이번 공연의 테마는 '오케스트라, 詩(시)에 물들다'였다. 서울대와 독일 라히프찌히에서 지휘를 공부한 김영언 지휘자의 지휘 아래 진행된 이번 정기연주회는 신병은 시인의 시모음 낭송과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의 만남으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했다.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는 순천 실내악회 오케스트라와 순천 챔버 오케스트라, 광양 챔버 오케스트라, 여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합병하여 만들어졌다. 단원들 모두 대학교수나 강사, 시향, 교직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력 있는 단원들로 엄선하여 선발되었다. 시민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여수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13년 창단 이래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휘자와 단원들이



하나가 되어 들려주는 오케스트라의 웅장함과 깊은 울림은 클래식 대중화와 음악으로 행복해지는 여수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고 있다.

차세대 희곡작가를 키운다 '2017 벽산희곡상' 벽산문화재단 & 벽산엔지니어링

벽산문화재단과 벽산엔지니어링은 한국 연극예술의 도약적 발전과 극작가의 창작 활동 활성화를 위해 '벽산희곡상'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문화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벽산희곡상'은 2011년 시작해 올해 7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작품을 공모해 우수 작품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또한, 선정 작품은 실제 공연으로 제작해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시상식은 지난 11월 14일, 구로동 벽산 갤러리홀에서 개최됐다. 141편의 공모작 중 최종심사에 오른 작품은 <오버랩>, <강철로 된 무지개>, <고독한 목록>, <아

버지 없는 아이>, <조치원, 새가 이르는 곳>, <갈한> 등 총 6편으로, 이중세 작가의 <강철로 된 무지개>가 제7회 벽산희곡상에 최종 선정됐다. <강철로 된 무지개>는 2048년 연방제로 통일된 평양과 2017년 현재를 넘나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통일이 됐음에도 넘을 수 없는 남북의 장벽,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자본주의의 마력과 인간의 탐욕이 치밀한 구성으로 엮이고 풀어진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7 사이먼 래틀 & 베를린 필하모닉 내한공연>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박삼구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이사장이 11월 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금호월드오케스트라 시리즈 <2017 사이먼 래틀 & 베를린 필하모닉 내한공연>에서 협연 무대에 오른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직접 만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지난 2015년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1위를 석권하며 대한민국 문화 예술계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조성진은 2005년 만 11세의 나이로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했다. 그가 데뷔한 금호영재콘서트는 문화예술 영재 발굴과 육성을 위한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의 다양한 활동 중 하나로, 1998년부터 시작한 금호영재콘서트는 한국 클래식 음악의 대표적인 등용문으로 자리 잡아 피아니스트 김선옥·손열음·선우예권, 바이올리니스트 김보소리·신지아, 첼리스트 고봉인·문태국 등 현재까지 1천 2백여 명이 넘는 음악가를 발굴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 조성진과 사이먼 래틀 경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닉은 약 30여 분 동안 '라벨 피아노 협주곡 G장조'를 협연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박삼구 이사장은 이날 공연 후 열린 리셉션에서 "이번에 사이먼 래틀 경이 지휘한 베를린 필하모



닉과 조성진의 협연이 이뤄진 것은 한국 클래식 팬들에게 큰 선물"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문화 예술계에 좋은 공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7 사이먼 래틀 & 베를린 필하모닉 내한공연의 두 번째 무대는 20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무대에서는 베를린 필하모닉 재단 위촉곡인 진은숙의 '코로스 코르돈'이 한국 초연되었다. 

200회를 맞이한 아름다운 음악 나눔 <KT와 함께 하는 토요일 오후의 실내악>

KT는 'KT 체임버홀'에서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마다 <KT와 함께 하는 토요일 오후의 실내악>을 진행한다. 지난 10월 14일에는 200회를 맞이해 기념 공연을 개최했다.

2009년 클래식 전문 공연장인 'KT 체임버홀'을 개관한 KT는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9년째 1만 원의 관람료로 공연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연 수익금 전액은 청각장애 아동의 재활을 지원하는 '소리찾기' 사업에 기부하고 있다.

만석을 기록한 이번 200회 공연은 서울대 음대 교수인 이경선 바이올리니스트와 KT 체임버 오케스트라가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를 협연해 호평을 받았

다. 이날은 KT 체임버홀 인근 지역 복지관, 실버타운, 장애인시설의 단골 관람객 80여 명이 특별 초청되어 공연을 관람했다. 또 공연 전에는 어린이들이 클래식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악기를 직접 체험해 보고 공연장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클래식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밖에도 관람객이 직접 연주자가 되어 보는 입체 포토존 체험, 기념 떡 증정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열렸다.



15년째 꾸준히 이어지는 단편영화 지원 제15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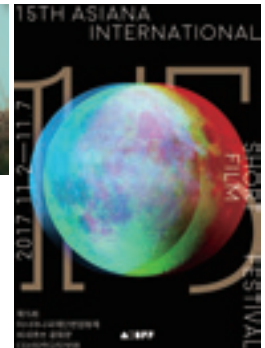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에 참여하고 있는 제15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가 2017년 11월 2일부터 7일까지 6일간 개최됐다. 올해 영화제에는 경쟁부문 출품 공모에 총 125개국 5,452편(해외 4,513편, 국내 939편)이 출품돼 또다시 역대 최다 출품 기록을 경신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전통적인 유럽 단편들의 강세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 단편들이 눈에 띄었으며, 최종 선정작은 국제경쟁부문에 총 31개국 47편, 국내경쟁부문에 총 13편이 선정됐다.

올해에는 완성도와 함께 개성 넘치는 국내작품이 많아 특별히 국내경쟁부문 그룹이 하나 더 늘어났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영화아카데미의 후원으로 KAFA상이 신설되어 국제/국내경쟁부문에 선정된 국내 단편 중 연출력이 뛰어난 감독에게 300만 원



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했다.

올해 15회를 맞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그동안 수상했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특별전을 준비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아시프 출신 감독들의 초기작부터 영화제 기간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까지 지난 14년간 아시프에서 특별한 순간을 맞았던 작품들이 재상영되었다.



제8회 장애청소년음악회 <뽀꼬 아 뽀꼬> 삼성화재

지난 10월 25일 호암아트홀에서 제8회 장애청소년음악회 <뽀꼬 아 뽀꼬>가 개최되었다. <뽀꼬 아 뽀꼬> 음악회는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청소년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예비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연주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되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국립특수교육원, 삼성화재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음악회는 'Oh Happy Day!'라는 주제에 맞춰 피아노 독주, 독창, 중창을 시작으로 장애청소년 및 청년 50명과 음악멘토, 삼성화재 임직원 및 자녀 등으로 구성된 80인조 오케스트라가 오경열 지도교수의 지휘에 맞춰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다채로운 연주를 선보였다.

특히 삼성화재 임직원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함께하여 더욱 풍성한 무대를 만들었고, 장애청소년 및 청년으로 이루어진 비바챔버앙상블과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분양받아 촉망받는 연주자로 활동 중인 김예지씨와의 환상적인 협연 무대로 더욱 감동적인 가을밤을 선사하였다.



이와 함께 음악재능 장애청소년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발족한 관현악 앙상블인 비바챔버앙상블은 지난 9월 세종솔로이스츠 단원들의 마스터클래스를 통해 전문연주단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조각의 미소-The Metaphor of Sculpture 展> 후원 한국암웨이

한국암웨이는 10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분당 암웨이미술관에서 <조각의 미소-The Metaphor of Sculpture 展>를 개최했다. 한국암웨이와 성남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전시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17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크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성남조각협회 소속 작가 45명이 참여해 다채로운 주제와 조형 기법의 작품 50여 점을 선보였다.

한국암웨이는 지역 예술가 후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이후 매해 성남조각가협회와의 전시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일반 조각 작품들과 더불어 설치·영상·페인팅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작품들이 준비되었으며, 전시 공간 또한 실내와 더불어 야외 공간으로까지 확장했다. 이를 통해 자유로운 관람 분위기가 조성하고 함께 작품



과 관객의 교감을 극대화 시켰다.

문화·예술 소외 계층을 배려한 프로그램 또한 마련되어, 11월 3일 전시 참여 작가 10여 명이 성남 소재 특수학교인 성은학교에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소금으로 노는 창작활동'을 주제로 공동 창작 작품을 만들었다.

2017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 일신방직 김영호 회장 '보관문화훈장' 수훈

일신방직 김영호 회장이 11월 2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멀티프로젝트홀에서 개최한 '2017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문화예술발전유공 훈장은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영호 회장은 예술의전당 후원회 부회장, 예술의전당 이사, 현대미술관회 회장,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문화선진국과의 활발한 문화교류, 예술의전당 등 예술기관의 발전 및 음악과 현대미술 진흥 등을 위한 많은 후원 활동으로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한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을 수훈하게 되었다.

이날 훈장 수훈식에서는 소설가 조정래, 화가 김구림, 송규태, 국악인 고(故) 이상규

등 4명이 은관문화훈장을 수훈했고, 그 외 보관문화훈장 수훈자로는 시대의 아픔과 인간의 근원적인 본질을 탐구해온 소설가 한수산, 환경건축가로서 40년간



많은 우수건축물을 설계한 김원 (원)건축환경연구소 광장 대표, 전통음악의 현대화에 기여한 고(故) 강준일 전 한국예술학교 전통예술원 객원교수, 한국 연극계를 대표한 연극배우 고(故) 윤소정 등이 선정되었다. 

MECENAT TOPIC

올 한해 메세나를 돌아보다 2017 A&B포럼 송년모임 개최

한국메세나협회가 2017 A&B포럼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A&B포럼은 기업 내의 문화예술 사회공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를 초청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강의와 함께 서로 교류하고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게 돕는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연간 총 4회가 진행되고, 그중 송년모임은 유일하게 저녁에 개최되며 문화공연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번 송년모임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젊은 소리꾼 이희문의 웃고 울리는 전통소리 <깊은 사랑> 공연이 열렸다. 최근 역량 있는 신진 국악인들이 국악의 현대화·세계화를 위해 우리의 창법을 새롭게 활용해 독창적이고 풍성한 음악콘텐츠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참석자들은 공연을 보며 국악이 월드뮤직화 될 가능성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가 진행된 <서촌공간 서로>는 메세나 기업인 세원특수금속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다. 특히 지역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기획해 서촌 마을 문화거점의 역할을 하는 공연장이어서, 지역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은 포럼 회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2017 A&B포럼 송년모임은 메세나 활동을 위한 활발한 네트워킹과 함께 올 한해 진행했던 메세나 사업에 대해 되돌아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December 12

뮤지컬 <험오스만 마초코의 일생>

2017.10.27~2018.1.7 /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아마다 무네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31년 전 착하고 바른 중학교 교사가었던 마초코가 괴물 같은 페인이 되기까지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여준다.



전시 김희천 개인전 <홀>

2017.11.29~12.23 /

두산갤러리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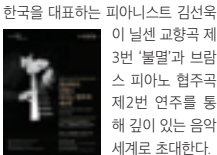
김희천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는 작가이다. 인터넷, 스마트폰, 3D 지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들을 활용하여 재현한 시간상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김선욱의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2017.12.1 / 롯데콘서트홀

세계적인 지휘자 오스모 벤스케와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연극 <망각의 방법1 - are you okay?>

2017.12.1~12.10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망각의 방법>은 연출가故 김동현과 그의 연극을 기억하고자 기획한 공연이다. 연작 첫 번째 작품 <are you okay?>는 김동현과 오랫동안 작업을 함께한 극단 코끼리만보 단원들이 중심이 되어 김

동현 연출의 작품 중 공동창작 작품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실내악 시리즈7

<시간의 종말을 위하여>

2017.12.2 / LG아트센터

지휘자가 아닌 클라리네트로서의 오스모 벤스케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아름다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피아니스트 김다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 I&II>>

2017.12.07, 12.14 / 금호아트홀

피아니스트 김다솔의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의 첫 시작 무대가 열린다.

2017년 금호아트홀 대 기획, <베토벤의 시간 '1720> 시리즈 중 하나인 이번 전곡 연주는 7일 첫 공연에서 소나타 1번, 13번, 11번과 28번을, 14일 두 번째 공연에서는 소나타 5번, 15번, 20번과 21번을 선보인다.



<신성한 시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2017.12.14 / 롯데콘서트홀



러시아에서 온 음악가, 지휘자 미하일 아르테스트와 2015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마슬레예프가 정통 러시아 낭만 음악의 진수를 소개한다.

연극 <망각의 방법2 - 오후만 있던 일요일>

2017.12.15~12.25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망각의 방법>의 두 번째 작품인 <오후만 있던 일요일>은 배상식 작가의 신작으로, 이제는 장년이 된 한 세대가 지나온 마음의 풍경들을 보여준다. 한 작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성열, 최홍훈, 윤한솔 연출가 각각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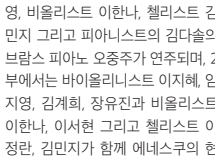


금호아시아나문화예술소이스츠와 함께하는 <A Great Christmas>

2017.12.21 / 금호아트홀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솔로이스트가 연주를 펼친다. 1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유진, 임지영, 비올리스트 이한나, 첼리스트 김민지 그리고 피아니스트의 김다솔의

브람스 피아노 오중주가 연주되며, 2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지혜, 임지영, 김계희, 장유진과 비올리스트 이한나, 이서현 그리고 첼리스트 이정란, 김민지가 함께 예네스쿠의 현악 팔중주를 연주하며 환상적인 크리스마스를 선사한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2017.12.21, 12.22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시향의 최고 인기 레퍼토리인 할

창 교향곡의 시간이 돌아왔다. 2017년에도 서울시향의 환희의 송가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삼성카드셀렉트 41 <베토벤 겨울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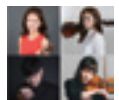
2017.12.26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탁월한 음악적 해석과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임동혁이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을 들려준다. 2부에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KBS교향악단의 웅장한 선율로 감상할 수 있다.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with 바이올리니스트 강수연,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곡 연주 III>

2017.12.28 / 금호아트홀



2017년 마지막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 기획 공연이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의 세 번째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전곡 연주로 마무리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수연이 함께한다.

KBS교향악단 제725회 정기연주회 <인류여, 영원한 환희를 노래하라>

2017.12.30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KBS교향악단의 마지막 정기연주회는 피아니스트 손민수 협연해 베토벤 <코랄 판타지>로 시작한다. 2부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연주된다.



<롯데콘서트홀 송년-제야 음악회>

2017.12.30, 12.31 / 롯데콘서트홀

총 3회에 걸쳐 열리는 2017 롯데콘서트홀의 송년-제야 음악회는 오르간, 바이올린, 성악곡, 합창곡 등 다채로운 연주를 통해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래며 다가오는 새해의 행복을 기대를 갖게 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January 01

<2018 두산아트랩>

2018.1.4~2.10 /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만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의 잠재력 있는 작품을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산아트랩이 올해 남한우, 극단 종이인간, EG, 쏘사이어티



등 창작자 6팀과 연극, 국악, 다원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쇼케이스로 진행한다.

<서울시향 2018 신년음악회>

2018.1.7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서울시향의 2018 첫 공연은 프랑스 레퍼토리로 짙게 채워져 있다. 세계적인 지휘자 파스칼 로페와 매력적인 사운드의 소유자 바이올리니스트 오귀스탱 뒤메이가 아름다운 프랜치 레퍼토리를 선사한다.

<2018 금호아트홀 신년음악회: 상주음악가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2018.1.11 / 금호아트홀



한국인 최초 프 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콩 쿠르에서 우승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은 양인모가 2018년 금호아트홀의 다섯 번째 상주음악가로 선정되어 신년음악회를 통해 관객들을 만난다.

금호아트홀 Exclusive <바이올리니스트 라이너 쿨힐 독주회>

2018.1.18 / 금호아트홀

금호아트홀 Exclusive 시리즈가 지난 45년간 빈 필하모닉을 이끈 전설의 악장 라이너 쿨힐의 독주회로 첫 문을 연다. 모차르트, 베토벤 등의 친숙한 곡들로 구성된 이번 독주회를 통해 청중들은 쿨힐의 넘볼 수 없는 연륜과 음악성에 감탄하게 될 것이다.



<강석우의 온 에어 콘서트>

2018.1.19 / 롯데콘서트홀

2017년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콘서트로 마티네 콘서트에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킨 온 에어 콘서트가 2018년에도 관객들을 찾아간다.



<최수열의 고전 두시: 오후의 하이든>

2018.1.24 / 롯데콘서트홀

서울시향 부지휘자를 역임하고 2017년 부산시향 상임지휘자로 발탁된 차세대 마에스트로 최수열이 2018 고전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하이든을 통해 관객들에게 고전음악의 정수를 들려준다.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 <첼리스트 제임스 김 독주회>

2018.1.25 / 금호아트홀

2015 유니스카제음악콩쿠르의 박성용 영예특별상 수상자 첼리스트 제임



스 김이 금호아트홀 라이징스타 시리즈의 첫 주자로 나선다.

KBS교향악단 제726회 정기연주회 <라인강의 영웅 서사시>

2018.1.25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8.1.26 / 롯데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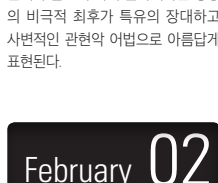


바그너 <탄호이저 서곡>에서는 '순례자의 합창'과 '비너스 동산의 테마'를 대비시켜 예민한 젊은 예술가의 고뇌를 음악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바그너 <신들의 황혼>은 4부작 악극 <니벨룽의 반지> 마지막 대단원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간계와 음모에 빠져 몰락해가는 영웅의 비극적 최후가 특유의 장대하고 사변적인 관현악 어법으로 아름답게 표현된다.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 <김계희 바이올린 독주회>

2018.2.22 / 금호아트홀

2016년 제모르제 예네스쿠 콩쿠르 우승에 이어 2017년 무네초구 국제 바이올린콩쿠르 우승까지 권위 있는 국제콩쿠르를 차례로 섭렵한 따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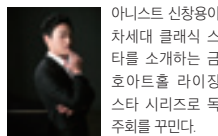


는 차세대 클래식 스타 김계희가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 시리즈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다.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 <신창용 피아노 독주회>

2018.2.1 / 금호아트홀

2017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우승자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차세대 클래식 스타를 소개하는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 시리즈로 독주회를 꾸민다.



<서울시향 2018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합창'>

2018.2.1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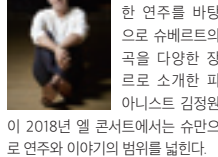
서울시향의 연주로 베토벤의 개성으로 가득한 피아노 협주곡 제3번과 브루크너의 서정적인 교향곡 제6번을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김정원의 음악선보>

2018.2.8 / 롯데콘서트홀

2017년 감미로운 해설과 섬세한 연주를 바탕으로 슈베르트의 곡을 다양한 장르로 소개한 피아니스트 김정원이 2018년 엘 콘서트에서는 슈만으로 연주와 이야기의 범위를 넓힌다.



금호아트홀 인터내셔널 마스터즈 시리즈 <알렉산더 크나제비 첼로 독주회>

2018.2.8 / 금호아트홀

'로스트로포비치의 진정한 후계자'라 일컬어지는 첼리스트 알렉산더 크나제비



가 바흐 무반주 첼로 전곡을 연주하는 전대미문의 독주 프로그램으로 범접할 수 없는 음악적 깊이를 선보인다.

<서울시향 2018 티에리 피셔와 르노 카뮈송>

2018.2.9 / 롯데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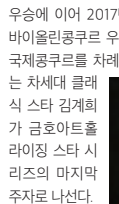
서울시향의 수석객원지휘자 티에리 피셔와 세계적인 인기를 안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르노 카뮈송이 만나 환율한 색채의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 <김계희 바이올린 독주회>

2018.2.22 / 금호아트홀

2016년 제모르제 예네스쿠 콩쿠르 우승에 이어 2017년 무네초구 국제 바이올린콩쿠르 우승까지 권위 있는 국제콩쿠르를 차례로 섭렵한 따르



는 차세대 클래식 스타 김계희가 금호아트홀 라이징 스타 시리즈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다.

<서울시향 2018 율리야 레즈네바의 바로크 음악>

2018.2.22 / 롯데콘서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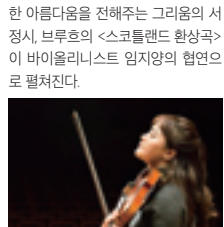
러시아의 신성이자 바로크 스페셜리스트 소프라노 율리야 레즈네바와 서울시향이 특별한 바로크 음악을 한 가득 선물한다.



KBS교향악단 제727회 정기연주회 <러시아 음악의 수채화>

2018.2.23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민요 선율을 중심으로 소박하고 투명한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그리움의 서정시, 브루흐의 <스콜렘랜드 환상곡>이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협연으로 펼쳐진다.



<김성현의 시네마 토크>

2018.2.24 / 롯데콘서트홀

現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로 다년간 클래식 공연 담당 기자를 역임하며 클래식에 대한 다채로운 저술 및 강연을 해온 김성현 기자가 특유의 입담을 바탕으로 영화 속에 등장하는 클래식 음악을 집중적으로 조망한다.

영화 속 클래식 음악에 관한 그의 이야기가 영화의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와 함께 관객들을 만난다.



ON MECENAT MEMBERS LIST

회장사	나라통상(주)	삼성엔지니어링	청림출판	KDB생명
금호아시아나그룹	(주)나우퍼플	삼성전자	카카오	KT
부회장사	네이버문화재단	삼성중공업	컨슈머타임스	KT&G
경남스틸	네이처스웨일리코리아	삼성증권	케이옥션	LG생활건강
교보생명보험	(주)노루비케미칼	삼성카드	코리아골프앤아트빌리지	LG전자
(주)노루홀딩스	(주)노루오토코팅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코카콜라음료	LG화학
동성코퍼레이션	(주)노루페인트	(주)삼양인터내셔널	크레디아 인터내셔널	LH
동일방직	녹십자	삼익문화재단	(주)클라우드나인마케팅	LMS
벽산엔지니어링	뉴서울 컨트리클럽	삼일회계법인	태영건설	OCI
삼성미술관(삼성문화재단)	뉴스킨 코리아(주)	(주)삼화에프앤에프	퍼시스	SK건설
삼양홀딩스	뉴욕제과	삼환기업	포스코CT	SK네트웍스
설원랑문화재단	다보성고미술전시관	삼양커뮤니케이션즈	프라임개발	SK에너지
세아제강	(주)다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필립모리스	SK증권
(주)유니드	대림산업	서울예술기획	하나은행	SK텔레콤
일신방직	대상	서울옥션	(사)한국FPSB	SK해운
종근당	대상문화재단	(주)성도GL	한국GM	TCC동양
코오롱그룹	대성산업가스	세일ENS	한국경영자총협회	
크라온 해태제과	대신증권	세화예술문화재단	한국공항공사	
풍산그룹	대우건설	소니코리아	한국공항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	대한상공회의소	(재)송원문화재단	한국광고주협회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한제분	(주)스파크인터내셔널	한국국제교류재단	
힐라코리아	(주)대한항공	신라교역	한국남동발전	
이사사	더페이스샵코리아	신성씨에스	한국마사회	
고려당	도서출판 '삶과 꿈'	신한금융투자	한국무역협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동서식품	신한은행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두산	동아쏘시오홀딩스	신한카드	한국서부발전	
디자인하우스	동아출판	아시아나IDT(주)	한국수력원자력	
사라	동일FnG(주)	아시아나에어포트(주)	한국암웨이	
(주)신세계	두리비전	아시아나항공	한국예탁결제원	
이건홀딩스	두산 산업차량(주)	아이엔지생명	한국전력공사	
전국경제인연합회	두산건설	(주)아이피케이	한맥도시개발	
파라다이스그룹	두산엔진(주)	(주)에스원	한미회계법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두산연강재단	영앤임성 주식회사	한미약품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두산인프라코어	오리콤	한빛문화재단	
효성	두산중공업	오비맥주 주식회사	한세실업	
한성자동차	롯데렌터카	올림푸스한국(주)	(주)한진	
POSCO	롯데문화재단	와이에스케이미디어	한화	
SK SUPEX추구협의회 사회공헌위원회	롯데백화점	우리종합금융	한화생명	
LG연암문화재단	르노삼성자동차	(주)우진	한화손해보험	
회원사	(주)맥스무비	우진건설(주)	한화케미칼	
가나아트갤러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원마운트	현대백화점	
간삼건축	(주)모나미	원암문화재단	현대자동차	
강원랜드	목천김정식문화재단	원포시스(주)	현대중공업 현대예술관	
경남은행	문화유산국민신탁	유안타증권	현대차 정몽구 재단	
공간종합건축사무소	미디어월	유중아트센터	(주)호텔롯데	
광주요	미래에셋대우	이건산업	(주)호텔롯데 면세점	
금융투자협회	법률사무소 C&B	인산죽엽 주식회사	호텔신라	
금호건설	베이글카페	인터파크 큐브릿지	홈플러스	
금호고속	보령제약(주)	인하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	환경관리 주식회사	
금호타이어	본아이에프(주)	재단법인 송강재단	휴맥스	
금호홀딩스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제우인베스트먼트(주)	BMW코리아(주)	
기업은행	(주)브레드가든	제일기획	BNK 부산은행	
김영사	삼성SDI	조선호텔	CJ문화재단	
나라삼양감속기	삼성SDS	조은시스템	GS칼텍스재단	
	삼성물산	종이문화재단	(주)HK	
	삼성생명	주식회사 차오름에프앤비	(재)KBS교향악단	
	삼성서울병원	지앤히어링코리아	KB국민은행	

NEW MEMBER



‘인간존중, 가치창조’.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 한미약품 제1의 사명이다. 한미약품은 이같은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KANU AROMA

좋은 커피는 한 순간도 향을 놓치지 않기에. 올 가을 카누의 향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KANU

아버지의 군고구마는,
I am your Energy

한겨울 추운 밤.

졸린 눈을 비비며 아버지를 기다렸다.

아버지 코트 속 주머니에 담긴 군고구마를 먹으려고.

그때는 몰랐었다. 그 작은 군고구마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큰사랑이었다는 걸.

오늘따라 유난히. 그때 그 밤이 그리워진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생명보험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황제펭귄의 허들링 이야기를 아시나요?
매서운 남극의 추위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안쪽 펭귄과 바깥쪽 펭귄들이
위치를 바꿔가며 체온을 유지합니다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찾아올지 모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이겨내는,
생명보험은 서로를 돕는 따뜻한 사랑입니다





PARADISE CITY

ART-TAINMENT RESORT

당신의



너를 기다려 봄

"다녀왔습니다~"

너의 이 말 한 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아니?

집에 오는 길이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까
엄마 마음 같아서는
매날 데리러 가고 싶은데~

오늘도 차 조심하고,
집에서 만나~ 사랑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안전용품을 무상 지원하는 해피스쿨 캠페인

삼성화재 RC와 임직원, 세이프키즈코리아가 함께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지원합니다

삼성화재 해피스쿨

삼성화재와 세이프키즈코리아가 함께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설과 용품, 안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프로젝트입니다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Kumho Art Hall beautiful thursday

2018년 금호아트홀
아름다운 목요일

Kumho Art Hall Artist in Residence

4만원

금호아트홀 상주음악가

1/11, 5/3, 6/21, 9/6, 11/15
양인모 Inmo Yang, Violin

Kumho Art Hall Exclusive

8만원

금호아트홀 Exclusive

1/18 라이너 쿨힐
Rainer Küchl, Violin
7/5 장클로드 펜티에
Jean-Claude Pennetier, Piano
10/4 콜야 블라허
Kolja Blacher, Violin
11/29 엘리스 비르살라제
Elisso Virsaladze, Piano

Baroque Signature

7만원

바로크 Signature

7/26 스즈키 마사아키
Suzuki Masaaki, Harpsichord
9/20 피에르 앙타이
Pierre Hantaï, Harpsichord
9/27 알프레도 베르나르디니
Alfredo Bernardini, Baroque Oboe
체칠리아 베르나르디니
Cecilia Bernardini, Baroque Violin
11/22 마한 에스파하니
Mahan Esfahani, Harpsichord
12/13 안드레아스 슈타이어
Andreas Staier, Harpsichord

International Masters

6만원

인터내셔널 마스터즈

2/8 알렉산더 크냐제브
Alexander Kniazev, Cello
3/22 알렉세이 볼로딘
Alexei Volodin, Piano
4/5 콘스탄틴 리프시츠
Konstantin Lifschitz, Piano
6/7 제레미 덴크
Jeremy Denk, Piano
6/14 데니스 코츠크인
Denis Kozhukhin, Piano
6/28 이논 바르나탄
Inon Barnatan, Piano
9/13 데이비드 프레이
David Fray, Piano

The Years of Beethoven '17'20

4/5만원

베토벤의 시간 '17'20

5/10, 5/17 프랑수아 프레데리크 기
François-Frédéric Guy, Piano
5/24, 5/31 김두민
Doo-Min Kim, Cello
김태형
Tae-Hyung Kim, Piano
8/16, 12/6 트리오 제이드
Trio Jade, Piano Trio
8/30, 12/27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Kallaci String Quartet
10/11, 10/18 김다솔
Dasol Kim, Piano
10/25 스와나이 아키코
Akiko Suwanai, Violin

William Youn, My Dear Mozart

4만원

윌리엄 유, 친애하는 모차르트

7/12, 7/19, 11/1, 11/8
윌리엄 유 William Youn, Piano

Kumho Artist "The Winners"

4만원

금호아티스트 "The Winners"

3/8 손정범
Jeung Beum Sohn, Piano
3/29 함경
Kyung Ham, Oboe

Kumho Art Hall Rising Star

3만원

금호아트홀 라이징스타

1/26 제임스 김
James Kim, Cello
2/1 신장용
Chang Yong Shin, Piano
2/22 김계희
Gyehee Kim, Violin

Kumho Asiana Soloists

4만원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4/19, 12/20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Kumho Asiana Soloists

Classic Now!

6만원

클래식 나우!

3/15 아샤 파테예바
Asya Fateyeva, Saxophone
4/12 조진주
Jinjo Cho, Violin
4/26 레미 제니에
Rémi Geniet, Piano

Special Concerts

3/5만원

스페셜 콘서트

8/2 박성용영재특별상 수상자 음악회: 송지원
Ji Won Song, Violin
8/9 금호악기 시리즈: 김봄소리
Bomsori Kim, Violin
8/23 한중수교 26주년 기념 음악회

주최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장소 금호아트홀

문의 0216303-1977

예매 금호아트홀 - 인터파크 - 티켓링크

티켓 전석 3만원~8만원

할인 123요금제 적용,
유스할인(만7세~만24세에 해당) 및
경로할인(70세 이상) 대상자는 40% 할인,
장예우 및 국가유공자 50%할인
(신분증 지참시, 중복할인 불가)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개척의 창조적 사고로
시대를 앞장서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SINCE 1945

EASY FUN LOVE

큐원 홈메이드

홈 베이커리를 더 쉽게, 즐겁게
엄마의 사랑을 담아 더 맛있게!

만들기 쉬우니까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맛은 더 건강하니까
매일매일 사랑하고 싶은
우리가족 간식, 큐원 홈메이드



겉은 바삭 속은 쫄깃, 스페인 정통츄러스의 맛!



카페와 전문점에서 즐기던 부드럽고 달콤한 맛!



16가지 곡물분말로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맛!

SAMSUNG



TV를 켜면 세상의 흐름이 보이는 리더의 공간이 되고



TV를 끄면 영감을 주는 아트 갤러리가 됩니다

공간의 프레임을 바꾸다

THE
FRAME

꺼져 있을 때 작품을 감상하는 아트모드 · 공간에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프레임 디자인